

# **우리글 논문 바로쓰기**

**국립국어연구원학예연구관**

**김희진**

## 우리 글 바로 쓰기

金希珍(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 — 차례 —

I. 좋은 글의 요건 .....	2
II. 우리말의 문법적 특질.....	2
III. 한글 맞춤법 몇 가지.....	3
IV. 번역 기법 몇 가지.....	10
V. 의료인의 글에서 나타나는 경향.....	13
VI. 사례로 본 의료인의 글	
1. 어문 규범	
가.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포함) .....	14
나. 표준어 규정.....	17
다. 외래어 표기법.....	19
2. 단어 선택.....	20
※ 동어 반복.....	24
3. 어법과 표현 .....	31
4. 어순.....	42
5. 文套.....	44
※ 번역투	
6. 문장의 길이.....	50
7. 글의 구조.....	51
<참고> 잘못 쓰인 용례.....	53



## I. 좋은 글의 요건

1.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2. 독자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3. 문장이 정확해야 한다.
4. 구성이 탄탄해야 한다.

## II.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

1. 어미와 조사가 발달한 언어에 속한다.
2. 문장을 구성하는 어순은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이다.
3.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4. 체언에는 부속어로, 용언에는 어간에 따른 어미의 변화로 그 단어가 어떤 성분이 되게 하는 문법적 직능이 있다.
5. 핵-끝머리(head-final/last) 언어이다.
6. 존대 표현의 차이에 따라 성분 사이에 일정한 호응 관계가 성립한다.
7. 명사는 문법적인 성(gender)이 없다.
8. 명사에서 복수 표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9. 冠詞가 없다.
10. 관계 대명사가 없다.
11. 시제 구별이 분명치 않다.
- 12.態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13.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이다.
14. 전치사가 없다.
15. 이른바 이중 주어문이라는 것이 있다.
  - 철수가 머리가 좋다.
  - 철수는 머리가 좋다.
  - 나는 음악이 좋다.
  - 철수는 인정이 많다.
  - 그 집은 차가 세 대가 있다.
  - 그 상점이 양복이 값이 100원이 싸다.
  -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둘이 났다.

### Ⅲ.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포함) 몇 가지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떨리는	웃고만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족	집 한 채	신 두 켤레	복어 한 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굴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증거리 탄도 유도탄	증거리탄도유도탄

## ● 구별하기

- |                   |                       |
|-------------------|-----------------------|
| - (으)로서(자격)       |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 - (으)로써(수단)       | 답으로써 핑을 대신했다.         |
| - (으)므로(어미)       |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
| (-ㅁ, -음)으로(써)(조사) |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

### <한글 맞춤법 문제>

1. 다음 단어 중 표기가 틀리는 것은?

- (1) 법률(法律)    (2) 졸렬(拙劣)    (3) 운률(韻律)    (4) 행렬(行列)

解説: 두음 법칙의 하나이다. 국어의 한자음 '렬, 률'은 현상이 특이하여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 받는다. 물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어도 말이다.

문제의 (3)은 'ㄴ' 받침 뒤이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율'로 적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11항을 참조할 것.)

2.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잘못 된 것은?

- (1) 이것은 책이오.  
 (2) 공사 중이니 돌아가시오.  
 (3) 모퉁이로 돌아가세요.  
 (4) 많이 드셔요.

解説: '-오'는 종결 어미이므로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 결합하여야만 하며 '-요'는 조사이므로 명사에 결합함은 물론 용언에 결합할 때에도 종결 어미 뒤에 다시 결합한다. 따라서 '-오'나 '-요' 앞의 말이 체언이면 당연히 '-요'를 써야 하며, 용언이더라도 종결어미라면 '-요'를 써야 한다. 특히 '-요'는 반말체의 종결 어미 '-아/-어, -지' 등 뒤에 결합되므로 쉽게 구분해 낼 수 있다. '가시오'의 경우 '-오' 앞의 '-시-'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요'가 결합할 수 없어 '가시오'라고 쓸 수 없다. '가세요, 가셔요'의 경우 '가세, 가셔'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므로 종결 어미 다음에 조사 '요'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가셔요, 가세요'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15항을 참조할 것.)

3. 다음에서 밑줄 친 부분이 잘못 된 것은?

- (1) 밤을 구워 동생과 나눠 먹었다.  
 (2) 학교가 가까워 걸어서 다녔다.  
 (3) 철수는 할머니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고 괴로와했다.  
 (4)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다.

解説: '88년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며 바뀐 것의 하나다. 비불규칙 용언의 'ㅂ'은 어간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관계없이 모두 '우'로 적는다. 다만 '뚥-, 곱-'과 같이 어간이 한 음절로 된 어간 중 [와]로 소리나는 것만 '-와'로 적는다. 따라서 위의 (3) '괴로와'는 '괴로워'로 적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18항을 참조할 것.)

4. 다음에서 표기가 잘못 된 것이 들어 있는 것은?

- (1) 골병, 골탕, 꿀탕                      (2) 몇일, 이틀, 사흘  
 (3) 아재비, 오라비                      (4) 부리나케, 업신여기다

解説: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골병, 골탕'은 '골-병, 골-탕' 인지, '끓-병, 끓-탕' 인지 분명하지 않다. '끓탕'은 앞 부분은 '끓-'로 분석되지만, 뒤 부분은 '탕' 인지 '당' 인지 알기 어렵다.

'머칠'은 실질 형태소인 '뗏'과 '일(日)'이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뗏닐->)뗏닐]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나 어미, 조사가 결합된 것처럼 [머칠]로 발음된다. '이틀'도 '사흘, 나흘' 등을 고려하여 '일흘'이나 '잇흘'로 적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 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한자어 '이(二)'와 결부하기도 어렵다.

'아재비'도 옛 형태가 '아자비'이어서, '아수 [弟] -아비->(아아비)아사비->아자비->아재비'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어 '아재비'를 '아애비'로 분석하여 적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라비'도 접두사 '올-'과 '아비'로 분석되지 않는다.

'부리나케'는 '화급하게'에 대응되는 말이므로 '불이 나게'가 바뀌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케'로 발음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업신여기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ㄴ'이 첨가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들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7항을 참조할 것.)

##### 5. 다음 밑줄 친 말 중 맞는 표기는 ?

- (1) 노력 끝에 사장이 되였다.
- (2) 훌륭한 사람이 되서 돌아왔다.
- (3) 얼음이 물이 되고 말았다.
- (4) 둘은 연인 사이가 뒀다.

解説: '되'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다. '되'에 어미 '어'나 '었'이 결합할 경우, '되어', '되었(다)'로 쓰거나 줄어든 형식인 '돼', '뒀(다)'로 써야 한다. 우리말에는 'ㅣ'모음 동화라는 규칙이 있어 앞말의 'ㅣ'의 영향으로 뒷말의 'ㄷ, ㅌ' 등이 'ㄴ, ㄹ'로 소리나는 일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되어'의 경우 발음이 [되여]로 나더라도 '되여'로 쓸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다만 준말은 준 대로 적으므로 '되어'가 줄어든 '돼'로 적는 것은 맞는 표기가 된다.

문제에서 (1)은 'ㅣ'모음 동화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므로 잘못이다. (2)는 '되-어서'가 준 말이므로 '돼서'로 적어야 하는데 그냥 '되서'로 적었기 때문에 잘못이다. 우리말에는 '-서'라는 어미가 없으므로 '되서'는 불가능한 형태이다. (4) 역시 (2)와 같은 이유로 잘못이다. '되-었다'가 줄어든 형식이므로 '뒀다'로 적어야 한다. (3)은 '되'에 어미 '고'가 직접 붙은 형식이므로 맞는 표기이다. ('한글 맞춤법' 제35항을 참조할 것.)

##### 6.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게 된 것은?

- (1) 어머니는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다.
- (2) 하늘이 붉은색을 띄고 있다.
- (3) 눈에 띠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 (4) 그는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파견되었다.

解説: '띠다'는 '(띠를) 두르다, 몸에 지니다, (용무, 직책, 사명을) 가지다, (빛깔을) 조금 가지다, (감정, 표정, 기운 등을) 조금 나타내다'의 뜻을 나타내며, '띄다'는 '(눈에) 뜨이다'의 준말이기도 하고, '뜨다'(물 위나 공중에 있다, 솟아 오르다, 틈이 생기다)의 사역형이기도 하다. '뜨'와 '이'가 줄어들어 '띄'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2)와 (4)는 '띠고'로, (3)은 '띄는'으로 고쳐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을 참조할 것.)

##### 7. 다음 밑줄 친 말 중 틀린 표기는 ?

- (1) 아직 안 갔어?



- (2) 죽어도 안 먹겠다.  
 (3) 쓰지 않으면 않된다.  
 (4) 내가 안 하지는 않겠다.

解説: '안'과 '않-'의 쓰임에 대한 문제다. '안'은 부사 '아니'가 줄어든 말로 품사가 부사이다. 따라서 용언을 수식하는 데 쓰인다. '않다'는 '아니하다'의 준말로 전체 문장을 부정하는 데 쓰는 보조 동사다. 따라서 어미 '-지' 뒤에 쓰인다.

'안'과 '않-'이 혼동될 때는 앞말이 어떤 것인지, 혹은 '아니'로 바꾸어도 말이 되는지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문제에서 (1)과 (2)의 '안'은 '아니'로 바꿀 수 있으므로 맞는 표기이다. (4)는 어미 '-지' 뒤에 쓰이고 '아니'로 바꿀 수 없다. 때문에 '않-'이라고 쓴 예가 맞다. (3)에서 뒤의 '않'은 '된다'를 꾸미는 말이며 '아니'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안'이 쓰여야 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틀린 표기이다.('한글 맞춤법' 제39항, 40항을 참조할 것.)

8. 다음 중 맞게 쓰인 것은?

- (1) 육월(六月) (2) 오뉴월(五六月) (3) 십월(十月) (4) 초팔일(初八日)

解説: 우리말에서 월이나 일을 나타낼 때 앞의 숫자 받침이 탈락하는 일이 종종 있다. 예로 든 '유월, 시월, 초팔일'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한글 맞춤법' 제52항을 참조할 것.)

9. 다음 중 맞게 쓰인 것은?

- (1) 곤란(困難) (2) 논난(論難) (3) 희노애락(喜怒哀樂) (4) 의론(議論)

解説: '難, 怒, 論'의 본음은 '난, 노, 론'이다. 이들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환경에서 간혹 '란, 로, 논'으로 'ㄴ, ㄹ'이 뒤바뀌어 발음될 때가 있다. 이를 속음이라 하는데 속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속음대로 적어야 한다. 이런 단어는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 제52항을 참조할 것.)

10. 다음 밑줄 친 말이 바른 것은?

- (1) 하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자.  
 (2) 그렇게 좋은가?  
 (3) 그 사람 참 멋있던데!  
 (4) 배던 사과던 마음대로 먹어라.

解説: '-더-'는 지난 일을 회상할 때 쓰는 어미로 '-더라, -던, -던지'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이는 회상 시제의 선어말 어미다. 그러나 '-든'은 '-든지'가 줄어든 형태로 '내용을 가리지 않는'의 뜻을 표시하는 조사나 어미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는 '하던 일, 좋던가?, 멋있던데!'처럼 '-더-'가 결합한 형태를 써야 하고, 내용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든(지)'를 써서 '배든(지) 사과든(지), 먹든(지) 말든(지), 오든(지) 가든(지)'처럼 써야 한다.('한글 맞춤법' 제56항, '표준어 규정' 제17항을 참조할 것.)

1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 (1) 나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2) 친구로서 충고한다.  
 (3) 뉴물로써 호소한다.  
 (4) 싸움은 너로써 시작되었다.

解説: '(으)로서'는 앞말이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대상을 나타내거나(4), 후행하는 서술어에 대해 어떤 지위·신분·자격 따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격조사이며(1, 2), '(으)로써'는 앞말이 후행하는 서술어에 대해 어떤 수단·

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격조사이다(3). ('한글 맞춤법' 제57항을 참조할 것.)

12. 다음 밑줄 친 말이 잘못 쓰인 것은?

- (1)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 (2)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써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
- (3) 날씨가 차도로 외투를 입어야 한다.
- (4)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解説: ‘-(으)므로’는 원인,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ㅁ 으로(써)’는 앞말의 명사형에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가 붙은 형태이다. 그러므로 문맥상 (1)과 (3)은 ‘믿-으-므로, 차-므로’로 까닭을 나타내는 것이고, (2)와 (4)는 명사형에 수단의 조사 ‘으로(써)’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믿음으로써, 인정함으로써’로 써야 한다. 특히 ‘으로써’는 없고 ‘ㅁ 으로써’만 가능하므로 ‘써’를 붙여 자연스러우면 ‘ㅁ 으로’로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57항을 참조할 것.)

1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된 것은?

- (1) 그가 나의 제안을 수락할는지 모르겠다.  
(2) 그가 집에 갈런지 궁금하다.  
(3) 그가 그 일을 완성해 놓았을런지 모르겠다.  
(4) 네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겠지?

解説: ‘-르 는지’가 맞고 ‘-르 런지’는 틀린다. ‘-르 는지’는 ‘-르 지’로도 바뀌어 쓰일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의 어미는 기원적으로는 ‘-리런 디’에서 유래한 형태이므로 ‘-르 런지’가 더 맞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하는지, 했는지’와의 체계를 고려하여 ‘-르 는지’를 표준으로 삼는다.

14. 다음에서 띄어쓰기가 잘못 된 것은?

- (1) 청군 대 백군                      (2) 장관 겸 부총리  
(3) 열흘 내지 보름                  (4) 구경도 할겸 친구도 만날겸

解説: ‘겸(兼)’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한자어로서 (4)의 예처럼 관형형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서도 사용되는 의존 명사이다. 국어에서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어와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명사 사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겸’ 앞은 띄어 써야 한다.

‘대(對)’는 앞뒤에 오는 명사가 ‘서로 상대하는’, ‘짝이 되는’, ‘비교되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처리되므로 이 역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내지’는 ‘혹은’, ‘또는’의 뜻을, ‘및’은 ‘또’, ‘그 밖에도’의 뜻을 지니며 앞뒤 말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 부사이므로 이 역시 앞뒤를 띄어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45을 참조할 것.)

15. 다음에서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1) 우리 회사 사장님은 김 양수 씨다.
- (2) 이순신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남해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 (3) 강릉에 있는 오죽헌은 이율곡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 (4) 그 집은 이군 집이다.

解説: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름 이외의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그러므로 '김양수 씨,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승만 박사' 처럼 띄어 써야 한다. 성과 호칭어, 관직명이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다만 '-가(爵)'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다만 ‘황보관, 남궁덕, 독고택’과 같이 성이 ‘황’이고 이름이 ‘보관’인지, 성이 ‘황보’고 이름이 ‘관’인지를 확실  
히 밝혀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황보관, 남궁덕, 독고택’ 등) (‘한글 맞춤법’ 제48

항을 참조할 것.)

1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 (1) 그 곳은 남자뿐이었다.
- (2) 가라기에 갔을 뿐이다.
- (3) 저 도서관 만큼 크게 지으시오.
- (4) 애쓴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법이다.

解説: '뿐'이나 '만큼'이 체언 뒤에 올 경우에는 조사로 다루어 앞 체언에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올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을 참조할 것.)

1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 (1) 내가 처음 한 약속 대로 해라.
- (2) 내가 처음 약속한 대로 해라.
- (3) 아는 대로 말해!
- (4) 법대로 집행하십시오!

解説: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나,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이는 경우는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을 참조할 것.)

1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띄어쓰기에 어긋나는 것은?

- (1) 오늘 날씨 참 시원한데.
- (2)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3) 이러한 방법은 역사 연구에도 적용되었던 것인데, 이는 매우 과학적이다.
- (4) 구조주의는 언어 단위들의 체계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解説: (1)의 '-ㄴ 데'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묻는 종결 어미이며, (3)의 '-ㄴ 데'는 '설명'의 뜻을 지니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나 (2)와 (4)의 '데'는 의존 명사로서 그 뒤에는 조사 '에'가 결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4)의 '데'는 띄어 써야 맞춤법에 맞다. 이와 같이 의존 명사는 제한적이지만 뒤에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어미와 구별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을 참조할 것.)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띄어쓰기에 어긋나는 것은?

- (1) 그가 떠난지 10년이 지났다.
- (2) 이렇게 해서 껍질이 벗겨지는지 모르겠다.
- (3) 그가 벌써 집에 도착했을지 아느냐?
- (4) 그가 유학을 간 지 겨우 다섯 달이 됐다.

解説: (2)와 (3)의 '지'는 어미의 일부로서 '-ㄴ 지', '-ㄹ 지' 전체가 하나의 어미이다. 일반적으로 '-ㄴ 지, -ㄹ 지' 뒤에는 '알다, 모르다, 궁금하다' 등의 동사가 오며, 이 때의 '-ㄴ 지, -ㄹ 지'는 '-ㄴ 가, -ㄹ 가'로 바뀌어 쓰일 수 있다. 반면에 (1)과 (4)의 '지'는 의존 명사로서 '시간'의 의미를 가지며, 이 때 '지' 앞에는 관형형 어미 '-ㄴ'만이 올 수 있다. 의존 명사는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예가 된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을 참조할 것.)



20.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이 띄어쓰기에 어긋나는 것은?

- (1) 공부만 하다
- (2) 짐승만도 못하다.
- (3) 이거 얼마만인가?
- (4) 밥을 먹을 만하다.

解説: (1)처럼 '한정(限定)'의 뜻을 가지거나, (2)처럼 '정도(程度)'의 뜻을 가질 경우에는 '만'이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하나, (3)처럼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만'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4)는 '만하다' 전체가 하나의 보조 용언이다.('한글 맞춤법' 제42항, 47항을 참조할 것.)

21. 다음 중 바르게 쓰인 것은?

- (1) 똥잔치
- (2) 똥음식
- (3) 한글 반포 500똥
- (4) 창립 100돌 기념

解説: 위의 '똥/돌'은 그 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으로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왔다. 즉 '돌'은 생일<위의 (1)과 (2)이 이에 해당함>, '똥'은 주기<(3)과 (4)가 이에 해당함>의 의미로 세분해서 써 왔는데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전자, 후자를 막론하고 '돌' 하나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2)와 (4)가 올바른 형태이다.('표준어 규정' 제6항을 참조할 것.)

22. 다음 '너, 녀, 네'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1) 너 돈, 너 말
- (2) 네 번, 네 시간
- (3) 너 냥, 너 푼
- (4) 녀 되, 녀 자

解説: '너, 녀, 네'는 모두가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의미는 같지만 뒤에 오는 단위 명사에 따라 달리 쓰이는 현상을 중시한 처리이다. 예를 들어 '돈, 말, 밭, 푼' 등이 뒤에 오면 '서, 너'가 쓰이고, '냥, 되, 섬, 자' 등이 뒤에 오면 '석, 녀'이 쓰인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을 참조할 것.)

23.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은?

- (1) 그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으로써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 (2) 한국 축구, 대망의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였음.
- (3) 청소년은 젊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 (4) 문성길, 10차 방어전에서 타이틀을 빼앗겼습.

解説: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으)ㅁ'이다. 그러므로 앞말이 모음이거나 'ㄹ'인 경우는 앞말에 붙여 쓰고, 'ㄹ' 이외의 자음일 때는 '-음'으로 쓴다. 위의 경우에서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듦'이고, '진출하였다, 있다, 빼앗겼다'의 명사형은 각각 '진출하였음, 있음, 빼앗겼음'으로 적어야 한다.

여기에서 '음'의 발음이 [쑈]로 나는 것에서 '-슴'으로 잘못 쓸 소지가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 '-읍니다'를 '-습니다'로 보인 것과 관련하여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형 어미 '-(으)ㅁ'이 연결될 때 [ㅍ] 소리가 나는 것은 앞말이 과거형 어미 '-었-/~았-'이나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겠-' 등 앞말의 받침 'ㅍ'이 뒤음절에 이어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습니다'와는 다른 경우이다.

(한글 맞춤법 제57항, 표준어 규정 제17항을 참조할 것.)

먹다 - 먹습니다 - 먹었습니다 - 먹음 - 먹었음



품다 - 품습니다 - 품었습니다 - 품음 - 품었음  
 잡다 - 잡습니다 - 잡았습니다 - 잡음 - 잡았음  
 가다 - 갑니다 - 갔습니다 - 감 - 갔음  
 보다 - 봅니다 - 보았습니다 - 봄 - 보았음  
 만들다 - 만듭니다 - 만들었습니다 - 만들 - 만들었음  
 있다 - 있습니다 - 있었습니다 - 있음 - 있었음  
 좋다 - 좋습니다 - 좋았습니다 - 좋음 - 좋았음

24. 밑줄 친 부분이 잘못 쓰인 것은?

- (1) 죄가 없음을 증명하시오.
- (2) 저는 죄가 없습니다.
- (3) 그가 그일을 했슴을 밝혀냈습니다.
- (4) 그가 학교에 갑니다.

解説: 종래 경우에 따라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여 써 왔던 것을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습니다'로 통일하였다. 동사의 명사형에 이 예를 적용하여 '-슴'이 표준어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사형은 동사의 어간에 '-ㅁ / -음'을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1)은 표준어지만 (3)은 비표준어이다. (3)의 '했슴'은 '했음'이어야 한다. ('표준어 규정' 제17항, '한글 맞춤법' 제15항을 참조할 것.)

#### IV. 번역 기법 몇 가지

##### ● 수동태

He was run over by car. 그는 차에 치였다.

I was surprised. 놀랐다.

A mouse was caught. 쥐를 잡았다.

##### ● 대명사의 번역

The woman cleared the table and carried the dishes to the kitchen. She set them on the table and stood there for a minute. Then she returned to the dining-room.

여자는 식탁을 치우고 접시를 부엌으로 날랐다. 그리고 접시를 부엌 식탁 위에 놓고는 잠시 서 있더니 식당으로 돌아왔다.

“옥희야, 그런 걸 받아 오문 안 돼.”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것처럼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 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내게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 대명사 : 호칭어, 지칭어 / 일반 명사

\* 「우리말의 예절」 (조선일보사, 국립국어연구원)

● 명사 복수형의 처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The girls descended between the houses with slate roofs and blackish brick walls.

처녀들은 슬레이트 지붕에 까만 벽돌담장으로 된 집 사이로 내려갔다.(?)

- (1) 문맥상 굳이 복수임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단수로 옮김.
- (2) 대표 복수라면, ‘개라는 놈’, ‘사과라는 과일’처럼 종류 전체를 가리키도록 옮김.
- (3) ‘사람사람’, ‘나라나라’, ‘거리거리’처럼 명사를 겹쳐서 복수를 나타냄.
- (4)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어 ‘-들’을 붙여서 나타냄.
- (5) ‘남자 몇 사람’이나 ‘책 몇 권’처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옮김.
- (6) ‘단독 범인’이나 ‘복수의 범인’ 식으로 구분해 줌.
- (7) ‘손에 반지를 줄줄이 끼었다.’처럼 부사를 사용하여 옮김.

● 주어와 주제어

- (1.a)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의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 (1.b)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
- (2.a)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 (2.b) 사람의 누구나 죽는다. (?)
- (3.a) 누가 왔니? 내가 왔어.
- (3.b) 누가 왔니? 나는 왔어. (?)
- (4.a)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창수야.
- (4.b)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의 창수야. (?)

● 품사의 대응과 명사화 문제

They don't insist upon the priority of qualitative difference, but merely substitute non-growth for growth.

- (1) 그들은 질적인 구별의 우선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성장 대신에 비성장을 대치시키는 것이다.
- (2) 그들은 질적인 구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성장 대신에 비성장을 대치시키는 것이다.

The two, having quitted their life in the upper story of the bar, moved into the suburbs and lived together with Nora's baby, Judy.

- (1) 두 사람이 주점의 2층에서의 살림을 그만두고 교외로 이사하여 노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2) 두 사람이 주점의 2층에서 시작한 살림을 그만두고 교외로 이사하여 노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시제 문제

‘아, 생각났다.’와 ‘Now I remember.’

‘She said that she was sick.’와 ‘그녀는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어느 날의 일이다. 석가께서 극락의 연못가를 혼자서 유유자적 거닐고 계셨다. 연못 속에 피어 있는 연꽃은 구슬처럼 새하얗고, 한가운데 황금빛 암술과 수술에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끊임없이 주변으로 흘러넘친다. 극락은 이제 아침을 맞을 것이다.

One day the Buddha *was* sauntering along on the brink of the lotus pond of Paradise. The lotus flowers in bloom in the pond *were* all as white as pearls, and the golden pistils and stamens in their centers ceaselessly *filled* all the air with ineffable fragrance. It *was* morning in Paradise.

● 표현을 뒤집어 옮기기

‘어디 안 좋으세요?’와 ‘Are you all right?’

‘Keep the soup warm.’와 ‘수프 좀 데워주지 않을래?’

‘Say the truth.’와 ‘거짓말 하지 마.’

● 접속 표현과 문장부호의 문제

Because the unfair is useful, but the fair is not.

(1) 왜냐하면 부당한 것은 유용하지만, 공평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부당한 것은 유용하지만, 공평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번역 어휘의 선택: ‘것’의 추상성

It is wrong to tell a lie.

(1.a)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1.b) 거짓말하는 버릇은 나쁘다.

Nothing is so important as friendship.

(2.a)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2.b) 우정보다 소중한 보물은 없다.

His being a foreigner has complicated the matter.

(3.a)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3.b) 외국인이라는 그 사람의 신분이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in the world.

(4.a)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다.

(4.b)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다.

※이상은 ‘번역의 실제’(김정우, 경남대, 국어문화학교 번역반 교재)를 정리한 것임.

## V. 의료인의 글에서 나타나는 경향

1. 미숙하고 어색한 표현이 보인다.
2. 번역투(직역투)가 상당히 많다.: 예 있어서, 가지다. 예도 불구하고
3. 수동태 표현이 많다: 의하여, ~이 되다.
4. 어순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보인다.
5. 어문 규범에 어긋난 예가 있다.
6. 한글맞춤법-뒤흔다, 있습, 갯수, 숫적/띄어쓰기,
7. 탈자 오식 등이 있다. 단백(단백질), 국환(국한)하다
8. 명사 나열식 문장이 많다.  
    감정의 유한성-감정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  
    질적인 구별의 우선을 주장하다-질적인 구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2층에서의 살림-2층에서 시작한 살림
9. 장문이 많다.
10. 대명사가 많다-이것, 그것, 이, 그들
11. '것'이 많다  
    거짓말하는 것은-거짓말하는 버릇은  
    우정보다 소중한 것-우정보다 소중한 보물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 외국인이라는 그 사람의 신분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 VI. 사례로 본 의료인의 글

### 1. 어문 규범

#### 가.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포함)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있는 신문,  
찾아서 읽고 전해주는 연결고리로써 직종  
간, 직급간, 부서간의 다양한 의견을 투명  
하게 투영할 수 있는 장으로써 이끌어 나  
갈 것이다.

루푸스가 생긴 생쥐에 텍솔을 투여해 44주동안 실험한 결과 텍  
솔을 투여하지 않은 생쥐 대조군에 비해 항DNA역가, 혈중 요소질  
소 단백질 등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연장되는 등 각종 임  
상적인 호전을 보임.

비침도말검사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  
법으로 만성 비질환의 진단 및 감별진단에 사용되어왔으나  
검체의 채취방법과 검사 결과의 판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검사시 세포 출현의 양성률이 37~  
61%로 낮은 검출율을 보여 임상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  
지는 못하고 있다

갈레르기 비염에서 호산구의 증가는 알레  
르기 반응의 강도와는 비례하지 않고 원인 항원에 대한 특  
이 검사가 아님으로 확진에 사용하기는 곤란하나 치료의 경

Concha bullosa는 넓은 의미로 중비갑개 혹은 드물게  
나타나는 상비갑개의 기포화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는 중  
비갑개의 기포화를 의미한다. 부위에 따라 중비갑개의 기포  
화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vertical  
lamella에 국한된 중판형(lamella type)이고, 둘째는 in-  
ferior bulbous부위에만 나타나는 수포형(bulbous type)  
이며, 셋째는 vertical lamella와 bulbous 부위를 함께 포  
합하는 확장형(extensive type)이다. 나타나는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4~80%로 다양하고 저자들의 경우에  
는 12.2%에서 관찰되었다.

병원보는 창간 당시 서울대학  
교병원의 모습을 병원 내외에  
알리고 부속 병원 당시에 비해  
수적으로는 크게 늘어나고

<1>

- ① 연결고리로서
- ② 장(場)으로

<2>

생존율(生存率)

<3>

- ① 양성률
- ② 검출률

<4>

아니므로

<5>

- ① 세 가지
- ② 셋째

<6>

수적(數的)

성대구증이 있으면서 성대결절이나 성대용종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성대구증만을 수술할 것인지, 성대구증을 수술하면서 성대결절과 성대용종도 같이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성대결절과 성대용종만 제거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아직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경우는 발성을 할 때 완전하게 닫혀지지 않는 성대점막에 과도한 긴장이 나타나서, 성대 점막에 shearing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성대결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성대구증에 대한 수술을 먼저 행하여 준 후 이차적인 성대결절은 음성치료를 이용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7>

Concha bullosa는 넓은 의미로 중비갑개 혹은 드물게 나타나는 상비갑개의 기포화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는 중비갑개의 기포화를 의미한다. 부위에 따라 중비갑개의 기포화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vertical lamella에 국한된 충판형(lamella type)이고, 둘째는 inferior bulbous 부위에만 나타나는 수포형(bulbous type)이며, 셋째는 vertical lamella 와 bulbous 부위를 함께 포함하는 확장형(extensive type)이다." 나타나는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4~80%로<sup>4)6)8)12)</sup> 다양하고 저자들의 경우에는 12.2%에서 관찰되었다.

<8>

- ① 세 가지
- ② 셋째

비침도말검사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만성 비결핵의 진단 및 감별진단에 사용되어왔으나 검체의 채취방법과 검사 결과의 판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였고,<sup>10)</sup> 검사시 세포 출현의 양성율이 37~61%로 낮은<sup>2)</sup> 검출율을 보여 임상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9>

- ① 양성률
- ② 검출률

알레르기 비염에서 호산구의 증가는 알레르기 반응의 강도와는 비례하지 않고 원인 항원에 대한 특이 검사가 아님으로 확진에 사용하기는 곤란하나 치료의 경

<10>

아니므로

어지러움증(眩暈症)을 주소로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의 진단에는 자세한 병력의 청취와 더불어 신경학적 인 검사를 포함하는 전정기능 검사가 중요시된다. 이층 온도안진검사는 평형반사회로의 수용기를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input-output 검사의 하나로 일측의 전정기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sup>1-3)</sup>

<11>

- ① 어지러움증(眩暈症)
- ② 환자를 진단할 때에는
- ③ 병력을 자세히 듣고 아울러
- ④ 검사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하에서 본 란을  
 활용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투고를 기다립니다.

<12>  
 난

Freud는 2년 뒤인 1925년, 논문「總括的인 꿈 해석에 대한 몇가지 追加」(1925)에서 3가지 特異形態의 꿈들을 이렇게 나열하였다.

1) 우리 인간은 더러 「非道德的인 꿈들」(immoral dreams)을 주는데, 예컨대 꿈속에서 자본인이 近親相姦・性倒錯・殺人行動・加虐行爲를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놀라 깨어나는 꿈들이 그런 것이다. 왜 그럴까. 인간에게는 이드(id)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마도 있고 또 그것에 반대하는 양심도 있다. 良心이 크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속에서 그럴만큼의 惡한 마음이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惡한 天性(nature)이 도사리고 있으며, 또 거기에서 나오는 힘도 크다는 사실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지않는가. 받아들이자.

<13>  
 ①세 가지  
 ②받아들일

환자가 말로만 해 준 꿈만 갖고도, 즉 發顯內容(발현용내용, manifest contents, manifest dream contents)만 가지고도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는 무척 흥미로워 이에 대해서 알기 원부가 많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그 언치락 될치락하는 모습을 年代順으로 정리해 본다.

<14>  
 언치락될치락

추측컨대 전 남편은 그녀의 도발에 반응을 보이지 안했던 것 같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이해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T부인의 내적 대상관계는 한편으로는 내적인 대상에게 책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관계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 대상으로부터 책피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관계를 번갈아 가며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난받는 대상들은 그녀 자신의 수치심을 가책 가는 운반자였고, 그녀가 비난하는 대상과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대상이 무의식적으로 환타지속에서 동일화함으로 어느 정도의 심리적 평형을 회복 하도록 만들어진 내적 세계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경험한 모욕감에는 자학 요소도 있었고 자신을 향한 가학(sadism)에 의해서 강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방식대로 그녀는 타인들에게 가학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컨대 갈수 없는 날짜의 극장표를 샀을 때는 피할 수 없이 같이 가기로 초청된 사람에게 실망을 줄 것이며 자신에게도 실망을 줄 것입니다(\*이런 식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가학적이 되었음. -역자 註).

<15>  
 ①추측컨대  
 ②창피(猖披)  
 ③것이었습니다  
 ④있었습니다  
 ⑤피었습니다  
 ⑥했습니다  
 ⑦예컨대  
 ⑧식으로



## 나. 표준어 규정

이식후 첫 수 개월동안은 가능한 한 외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사다 먹는 것도 피하십시오.

<16>

삼가는

고향의 은은한 기운이 뱀 '우리 시대의 먹거리'

<17>

먹을 거리

의료의 질 향상(질 관리)은 이제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놓칠은 용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의료의 질에 대한 거론은 많아도 체계적인 질 향상을 기리려는 일로서 OA  
는 아직도 익숙한 개념은 아니다.

<18>

놓칠

그리고는 어차피 해야 할 거면 빨  
리 하는게 낫다고 생각되어 자판  
기를 열심히 두들겼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후 다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그 선생님  
께서 요즘은 어떠냐고 물어보시  
길래 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또  
말씀드렸다. "힘들지만 열심히 해  
야지. 이왕하는 거면 ... 그리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이란게 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  
다." 평소 나와 장난치는 걸 좋아  
하던 분이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  
자 괜히 나까지 심각하게 되버렸  
다. 난 그후 며칠동안 곰곰히 생  
각했으나 결국 그 해답을 찾지 못  
했다. 난 친구들에게 다치는대로  
물어보았다.

<19>

- ① 생각하여
- ② 물어보시기에
- ③ 돼버렸다(되어버렸다)
- ④ 곰곰이

언론에 소개된 기사 총건수는 지난달 370건에 비해 192건으로 감소했다. 신년을 맞아 병원에서 치  
뤄진 각종 행사로 인해 다른달에 보통 4~5개씩 발표되던 학술발표가 이번달에는 감마나이프수술  
200례 돌파, 민이 언론에 제공되는 등 학술건강 기사가 12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20>

- ① 치러진
- ② 발표되던



또 한가지 興  
味있는 事件은 집에서 큰 party를 한참 벌리고 있는 동안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K의 막내동생이 强姦을 當했다고 하는데, K의 兩親은 party는  
집에 禍를 끼친다고 삼가해 왔으므로 처음으로 한 party날에 自己들이 의심  
을 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겠읍니다.

<21>

①별이고

②삼가

학술회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침 7시부터 12시 45분까지  
Plenary Session이 있고,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45분까지 오전의 테마에  
대하여 20개의 크고 작은 group으로 나뉘어 자유토론을 갖으며 4시 15분  
부터 5시 45분까지 다시 20개의 방에서 다시 각종 논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  
한 토론을 갖는 형식이었다.

<22>

가지며

그림을 그린다 것은 환자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래왔던 외부현실과 접촉하게끔  
해주며, 그것은 환자에게 완전히 반응을 보이는 '다른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23>

바라

나는 무척 새를 두려워 해요.

(첨목)

치료자: 새의 무엇을 두려워하죠?

환 자: 새의 주둥이요, 글썽요, 새가 나를 물어서 해칠까봐 두려워 하나봐  
요.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새가 글썽을 통해 내 방에  
들어와 날아다닌 것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어머니도 놀라서 들다 집을 도망쳐 나온 후 이웃 사람이 우리집에 와서  
새를 쫓아냈어요.

<24>

①놀랐던지

②놀라서

여하튼 따로 쓴 것은 1911년.

1923년, 1923년의 자기 1편씩 뿐이다. 그러나 Freud는 자기의 꿈 理論이  
맞나, 맞지<sup>나</sup>않나를 결론 실제임상상황에서 확인하였으며, 그런 면으로서 소  
위 「Dora 증례」라고 불리는 1905년에 발표한 한 긴 논문의 主目標가 환  
자 꿈을 통한 자기 꿈 이론의 再三確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 그가 발표  
한 「少年 Hans 증례」·「Schraeber 判事 증례」·「취人間 증례」·「늑대人間 증례」  
등에서 꿈의 해석이 무척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25>

①증례

②불리는

분석 첫 해에 분명해진 것은 그녀가 자신의 가학소원(sadistic wish)과 경  
쟁소원에 대한 매우 심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은 매우  
재주가 있고 독특한 쌍둥이 여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감정에서 유래한 것이  
었읍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성공을 억제해왔고 어릴 때는 읽기를 잘 못  
해서 (reading block) 쌍둥이 동생보다 뒤떨어졌읍니다.

<26>

쌍둥이

## 다. 외래어 표기법

### 식사와 음식에 대하여

과일과 야채 ① 인스턴트음식 / 집에서 요리할 때 / 외식은? / 음료수는?

#### ② 인스턴트음식

노상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증식에서 뽑아주는 아이스크림은 여러분의 소화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세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포장이 잘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먹도록 하십시오. 요리가 필요없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치즈나 소시지, 순대, 튀김, 떡볶이, 셀러드 같은 음식도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먹지 않도록 합니다.

① 탈유당분유가 적당합니다. 그외 치즈 요구르트, 달걀, 굴, 조개 및 두부등에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한 칼슘섭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칼슘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용한 식기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씻도록 하고 타올과 침구는 규칙적으로 세탁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⑤ 음료수는?



좋은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매일 2~3L의 음료를 섭취하도록 해야합니다. 우유, 과일주스 등 당분을 공급하는 음료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입퇴원예고제, 입원기록업무의 단순화, 차트의 퇴원일 당일 반납, 입원차트의 입원 전일 병동 송부, 업무의 시간대별, 배치.

<27>

- ① 인스턴트
- ② 일으키기도 하는/일으킬지도 모르는
- ③ 우려가 크기 /소지가 많기
- ④ 소시지
- ⑤ 떡볶이
- ⑥ 위험이 있으므로/여지가 많으므로

<28>

- ① 치즈
- ②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29>

타월

<30>

주스

<31>

차트

## 2. 단어 선택

이처럼 진단적

접근방법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란이 있어 임상의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임상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자들의 임상적 경험과 문헌 고찰들을 통해 소아에서의 갑상선 종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소아에서 갑상선 종양의 발생률은 성인에 비해 적으나 갑상선 종양중 갑상선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ung<sup>2)</sup> 등은 갑상선 종양 총 71명의 환자중 결절성선종(nodular goiter) 2예, 갑상선종(adenoma) 48예, 갑상선염 4예, 갑상선낭종은 3예로 양성종양이 80%이고 갑상선암은 14예(20%) 라고 보고 하였다.

초기 항생제는 Augmentin<sup>®</sup>(amoxicillin/clavulanate potassium)을, 교환 약제로는 환자에 따라 바꾸어 사용하였다. 스테로이드는 prednisolon 1 mg/kg을 5일 동안 복용후, 매일 5~10 mg씩 감량하여 투여하였다.

호산구가 알레르기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비용종환자에서 75.5%의 높은 출현율을 보여 비용종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었다.

1994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만성부비동염이 의심되어 침례병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받은 환자중, 부비동비강용종 및 부비동내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어 정상 구조의 변형이 초래된 환자를 제외시킨 10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포는 15세에서 81세(평균 48세)였으며 남자가 532명, 여자는 491명으로 각 환자에서 우측과 좌측을 별개로 하여 2046례를 대상으로 Toshiba Xspeed CT를 사용하여 경정맥 조영 증강후 횡단과 관상주사를 시행하였다.

<32>

- ⑤ 모호(模糊)하고
- ⑥ 일으키기도

<33>

대상과 방법

<34>

발생률은 성인에 비해 낮으나

<35>

줄여

<36>

영향을 끼침을

<37>

- ① 이비인후과에 와
- ② 정상 구조가 변형된 환자를 제외한



"Oedipus at Colonus"에서 보면 신성한 숲에서 그는 신비한 죽음을 맞이한다. 아무도 그가 임종하여 묻힌 곳을 알 수 없도록 그는 흔적없이 숲속 어디에선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묻힌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를 받아준 그 땅에 평화와 축복을 내릴 것을

<38>

※생략함

꿈속에서 그 序頭에 분석가·분석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수가 많은 데, 이는 결국 자아의 관찰 기능 때문이며 또 이는 轉移의 발전·변화를 말한다. 즉 전이의 변화는 그 어느 경로보다 꿈을 통해서 가장 빨리 포착된다.

<39>

포착(捕捉)

그렇게 강한 trauma의 經驗 때문에 너는 그후 아버지를 분개시켜 너를 때리게 함으로서 tension을 發散하는 方法을 배운 것 같았다고. K의 즉각적 反應은 놀란음과 깊은 自責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행동으로 Pier를 고문시킨 사실을 깊이 뇌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reconstruction이 있을 후 그녀의 regressive hypnotic acting out behavior는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飲酒 습관과 不眠症도 없어졌으며, 職業적으로 優秀한 結果를 내어 마침내 남들이 부러워하는 歐洲戰場으로 轉勤을 하는 機會가 돌아오자 다소 時機尙早助이지만 分析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K는 充分히 分析이 完遂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自覺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자기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에게 歐洲 生活이 얼마나 큰 意味를 갖는 것인지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며, 分析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계속할 수 있겠지만 歐洲에 가는 機會는 다시 올까 의문이니 歐洲에 가는 것을 선택한다고 했을니다. 또 心理적으로 첫 分析과 달라 아주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分析中絶이 그렇게 害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短期間 그녀는 'Lesbian Group'의 女子 친구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특히 그녀가 California에 갔을 때 그런 女人들과 몇 번 사건 후 幻滅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Termination의 主題는 再生의 fantasy와 女同生 P와의 競争에서 勝利를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職業적으로 더 成功하고 男性들에게 더 매력적이며 인기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40>

①시기상조(時機尙早)

②중단(中斷)

③선언(宣言)

2年半이라는 分析期間동안 그녀는 거의 獨身과 禁慾상태를 維持하였고 초기에는 가끔 dating scene에 나갔으나 그럴 때마다 굴욕감을 免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轉勤 날짜가 가까와지자 그녀는 避妊法을 完備하여 異性間的 모험도 할 準備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祖母는 性格이 산나왔고, K도 어렸을 때 불끈 화를 내거나 자기마음대로 안되면 tantrum을 내는 것이 5歲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K는 여섯 형제중에서 맏이인데 女同生 P가 2년후에 出生했고 그후 남동생 셋이 6년 사이에 생겼으며 막내 女同生은 K가 15세 되던 해에 났습니다.

<41>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안색이었다.

<42>

인상(印象)

이는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고자 이용우 기사장을 비롯한 참 의사가들이 환자들과 신속한 검사를 위해 최후 집결인 접수에서부터 검사안내에 이르기까지 환자와 함께하고 있는 흐뭇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용우 기사장이 직접 접수창구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환자들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가 하면 접수 창구 앞에서는 수석기사가 하루씩 교

대로 한 발 앞서 환자들의 <sup>①</sup>접수를 도와줘 검사 접수나 예약을 위해 볼 수 있었던 대기하는 줄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함께 직접 의료가시가 검사실까지 환자를 안내하고 또 검사 후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상세한 설명까지 해 줌으로써 병원을 처음 찾아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친절함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검사실 앞의 한 환자가 고마움을 표시한다.

<43>

- ① 환자들을 신속히 검사하기 위해
- ② 첫 대면인/첫 만남인/처음 마주치는
- ③ 신청

종합병원을 들어설 때마다 환자들은 병원의 복잡하고 방대한 시설 때문에 어디로 가서 진료 접수 등을 해야 할지 난처할 때가 비일비재 하다. 그러나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은 차문을 열어주는 환자친화적 경비원, 길을 안내하는 상냥한 도우미, 진료상담을 해주는 자상한 중앙안내 상담원들이 있기에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우리 병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앙안내를 찾아 그들의 바쁜 업무를 잠시 엿보았다.

<44>

- ① 신청
- ② 도움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구라봉사회 출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여군으로 활약하고 있는걸 보면 구라봉사회활동의 힘든 과정에서 단련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 치과 대학교수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치과병원 신축문제를 당시 원장 한용철 교수님과 병원의 여러 간부들이 힘써주신 덕에 부지(구 창경국민학교)를 마련하고 건축비로 정부출연금을 받아옴으로써 치과병원 신축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당시 관계자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45>

- 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단련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 ② 신축에
- ③ 교수와/선생님과
- ④ 집터
- ⑤ 된 것에 대해

그러면서도 "오늘은 인터뷰를 한다니까 어떻게 알고 진료 문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라며 웃음을 띄는 중앙안내 직원들.

본관을 들어섰을때 엘리베이터 왼쪽에 자리잡은 중앙안내 데스크에는 박희심 간호사, 이경숙씨, 주희구 자원봉사자(환자편의향상위원회 대표)외에도 6명의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가며 안내를 하고 있다.

<46>

- ① 웃음 짓는/미소 띄는
- ② 봉사자 여섯 명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족사진을 5월 7일(금)까지 응모하고 있으니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7>

공모(公募)

이 종이기록과 비디오기록을 밤새

- ① 수면검사를 시행한 수면검사전문기사와 수면의학전문의학가
- ② 수시간에 걸쳐서 판독하면 어떠한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수면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정상인의 수면과 어떤 점에서 틀린가 등에 관한 포괄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결과와 임상소견을 근거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검사의 진단율이나 유용성은 아주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48>

- ① 수면 검사를 한
- ② 몇 시간에
- ③ 다른가

새마을금고 (구 어린이집 /T.2163, 3200)에서는 산속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상담할 계약직 직원 0명을 5월 6일(목)까지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만 40세 미만의 고졸 이상으로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각 1통
- 면 접 : 5월 7일(금) 오후 2시 새마을금고 사무실

<49>

응모 자격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복무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근무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장은 직원 근무상황을 5월 4일(화)까지 총무과 인사계(소아혈관 4층/T.2715)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50>

근무상황부율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점차로 등이나 허리에 눈한 동통 및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땀이 더욱 약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골, 대퇴골(허벅지뼈), 요골(손목뼈) 등에 골절이 잘 일어나는데, 대퇴골 근위부 골절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중 가장 위험한 골절로서 약 15~20%는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환자의 약 50%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으로 여성 동안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① 척추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의 통증이 오고 척추의 변형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도 작아지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51>

- ① 눈한 동통이나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 ② 땀이 더욱 약해지면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사망하기도 합니다.
-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 ⑤ 생활하는 데에
- ⑥ 척추가 골절하면
- ⑦ 요통
- ⑧ 척추 모습이 달라져

이환되는 연령층이 주로 유소아이나 성인에서도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16세이상 성인환자의 발생빈도는 조사기간동안 총 외래환자의 약 1.12%였다.

비즙세포검사는 비강과 부비동의 염증이나 점막이상을 잘 반영해주는 간편한 검사법으로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호산구와 호염기구가 증가되고, 세균의 감염이 있는 경우는 호중구가 증가하며,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등에도 특이 세포의 증가를 보이나,"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는 비즙의 점탄성과 불균질성이 정확한 세포 검사에 장애요소가 되었으며, 결과의 판정에도 검사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차이가 있고, 염증세포의 출현율을 조사하거나, 정량적인 검사를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비즙 세포검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임상적인 사용에 제한 요인이 되어왔다.

#### 외과적 치료

내과적 치료에 실패한 환자 및 증상 호전후 재발한 환자에 대해서는 국소마취 하에 고막절개 및 환기튜브유치술의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였고 초진시부터 수술적 치료까지의 기간은 3주에서 6개월로 다양한 치료기간을 보였다.

갑상선 종양은 소아에서 흔하지 않은 질환이지만, 이 중에서 갑상선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관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다. 또 진단을 내릴 때 정확하고도 손쉬운 비침습적인 진단방법이 없고, 갑상선 종양 진단에 유용한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한 세침 흡입 생검도 성인과는 달리 소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발 및 원경 전이가 6예, 국소적으로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이 심해 미시적인 전여암이 의심되었던 1예에서 시행되었다. 저자들의 경우, 수술후 비 치료 적응증은 Table 9와 같다.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환아는 8예이었으며 이중 2예가 18년, 4예가 13년 그리고 1예가 8년이상 모두 건강한 상태였고, 단 1예만이 3년 6개월 후 치료 중 폐전이로 사망하였다. 나머지 환아는 지속적인 추적 조사는 중단되었지만 2예가 각각 4, 5년 그리고 나머지 2예는 각각 13년, 15년간 무병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Table 10).

## ※ 동어 반복

<52>

조사 기간

<53>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54>

- ①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지만
- ②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③ 조직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 ④ 소아에게는

<55>

전여암이 아닌지 의심되었던

<56>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지난 4월 26일 컴퓨터내의 파일을 삭제하고 BIOS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CIH 바이러스가 전국에 발생, 우리병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바이러스 1,200여종을 포함해 약 20,000여종의 바이러스가 보고됐으며, 언제 이러한 바이러스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까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실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초 주요 바이러스 활동일을 월단위로 주간소식 및 원내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정보실은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병원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회사와 백신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57>

- ① 손해를 보았습니다./해를 입었습니다.
- ② 바이러스를 보고했으며
- ③ 바이러스가 해를 줄지/손해를 입힐지

## 안과 이진학 교수팀, 포스터 특별상 수상

안과 이진학 교수팀 (박원경 정익상 위원장 교수)이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25회 미국 백내장·굴절수술학회에서 포스터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교수는 총 128편의 포스터를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문마다 한 편씩 주어지는데 이 교수팀은 특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포스터가 미국 백내장·굴절수술학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8>

- ① 특별상 받다/ 특별상 받음/ 특별상 받아

기 박사는 4월부터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내에 그의 호를 딴 '素岩齋文化史研究所' 소장 을 맡아 의사학 연구에 몰두키로 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가진 모든 의사학 지식을 후학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제2의 의사학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여든 나이를 바라보는 老 醫史學者의 훈훈한 지식 사랑, 후학 사랑이 경외심으로 다가온다.

<59>

- ① 소장직(所長職)
- ② 여생(餘生)

수혈은 ①외과 수술시 혈액을 손실로 인한 순환혈액량의 감소를 보충해 줌으로써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고, 혈액응고 인자치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치료과정이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수혈은 질병의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에 따른 출혈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수혈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이식수술과 대량출혈이 예상되는 응급 및 장시간 수술의 경우 수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⑤ 미리 예측하여 많은 량의 혈액을 신청하므로 상황이 바뀔 경우 다수의 혈액 폐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60>

- ① 외과 수술에 따르는 혈액 손실로 인한
- ② 응급 수술이나 장시간 수술을 할 경우
- ③ 예측(豫測)하여

<61>

- ① 약물을 사용하여도 실제로 만족할 만큼 골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② 예방(豫防)

그러나 아들 ① 약물의 사용으로도 실제로 만족할 만한 골량의 증가를 유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③



이식 후 새로운 골수의 성장과 손상된 정상세포의 재생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피곤함을 쉽게 느낄 것입니다.

약 3개월 후 빠졌던 머리가 <sup>②</sup>성장하기 시작하며 이는 세포가 <sup>③</sup>회복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④ 가정에서의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62>

- ① 이 기간에
- ② 자라기 시작하는데
- ③ 회복하고 있다는
- ④ 가정 생활

이식 후 1년 동안은 면역체계가 <sup>①</sup>아직 미성숙하므로 모든 감염으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와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특히 전염성이 있는 <sup>②</sup>사람과의 접촉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의 가능성을 알리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101병동으로 연락하십시오.

- ▶ 38℃ 이상의 고열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 ▶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있고 <sup>③</sup>추운 한기가 들 때
- ▶ 기침, 재채기, 콧물과 가슴에 통증이 있고 호흡이 힘들 때
- ▶ 목, 눈, 귀, 피부와 관절, 복부에 통증이 있고 붉어지고 부어 오를 때
- ▶ 배뇨시 따가울 때
- ▶ 입주위나 몸에 궤양과 수포가 생길 때
- ▶ 설사를 하거나 배변시 복통이 있을 때

<63>

- ① 미성숙하므로/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 ② 에서부터
- ③ 사람과 접촉했을
- ④ 한기(寒氣)가 들 때/오들오들 떨릴 때

① 매일의 식사를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 <sup>②</sup>조금씩 자주 먹는 것입니다. <sup>③</sup>가능한 매 식사 때마다 모든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 하십시오.

- ▶ 단백질 : 육류, 생선류, 알류, 두부, 과일
- ▶ 비타민과 무기질 : 신선한 야채, 과일
- ▶ 탄수화물 : 곡류, 감자류, 면류, 빵류
- ▶ 지방질 : 기름, 유제품, <sup>④</sup>마가린, 버터

지금은 임상 연구, 교육 등 돌봄의과치과 대학과 <sup>①</sup>자매결연을 맺어 교정분야에 있어서 형제관계를 이룰 정도로 많은 발전을 얻었다.

<64>

- ① ※'매일의'를 삭제함.
- ② 조금씩
- ③ 가능(可能)한 한(限) 식사 때마다/될 수 있으면 식사 때마다/가능한 한 매 식사시에
- ④ ※유제품(乳製品): 버터, 마가린 등도 포함함.
- ⑤ 마가린

<65>

- ① 자매(姉妹) 결연(結緣)을 하여/ 자매의 인연을 맺어
- ② 많이 발전하였다.

소아혈액 중양환자의 증가로 인한 다른 여러 소아분과의 신환감수를 극복하고 한 시 상존하고 있었던 의료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입원 기간의 단축 및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아혈액중양병동을 따로 마련하여 운용하였다.

<66>

- ① 중양 환자가 늘어나
- ② 상존(常存)하고
- ③ 예방(豫防)하며

#### ④ 칼슘섭취부족

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기피하거나, 동물성 단백(육류고기)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에게 잘 발생합니다.

그보다는

당시의 정국 상황이 민중들의 의학교 설립 요구를 수용하게 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입원시 질병에 대한 불안 뿐만 아니라 낮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67>

①환자가 입원할 때 당사자나 보호자는 질병에 대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낮선 환경에 대해 두려워한다.

<68>

육류(肉類)

<69>

중요한 원인/큰 요인(要因)

- ①생식 가능 기간중의 난소의 크기는 약  $4 \times 2.5 \times 1.5$  cm이다. 난소는 피질(cortex), 수질(medulla)과 문(hilu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은 단층의 체강상피로 덮혀 있다. 피질은 외피질과 내피질로 이루어져 있다. 체강상피 바로 밑의 외피질은 얇으며 비교적 세포가 드문 교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피질은 섬유아세포를 담은 방추형 세포들이 밀집해서 존재한다. 피질에는 여러 성숙 과정의 난자와 난포(follicle)가 있다. ③에 회의 월경 주기 때마다 ④한 개의 난포는 그라프 난포(graafian follicle)로 성숙되어 ⑤난자를 배란한 뒤에 황체(corpus luteum)로 전환된다.

<70>

- ①생식할 수 있는 기간 중의
- ②덮여
- ③매회의 월경 주기 때/월경 주기 때마다
- ④난포 한 개는 ~성숙하여
- ⑤배란(排卵)한 뒤에

갑상선 증양은 소아에서 흔하지 않은 질환이지만, 이 중에서 갑상선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관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다. 또 진단을 내릴 때 정확하고도 손쉬운 비침습적인 진단방법이 없고, 갑상선 증양 진단에 유용한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한 세침 흡입 생검도 성인과는 달리 소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71>

- ①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지만
- ②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③ 조직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 ④ 소아에게는

⑧암 발생빈도는 지역(국가), 인종, 생활양식에 따라 크게 다르나 일반적으로 인구 10만명당 연간 300~400명 정도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한겨레 6천만명을 기준한다면 연간 약 18만~24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72>

- ⑧암이 발생하는 빈도는
- ⑨정도가 된다.



단순히 많은 수효의 항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요항원의 선별적 선택이 보다 능률적인 선별 검사에 중요하다

<73>

주요 항원을 선별해야 좀더 능률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성대에 양성질환이 존재할 때 성대 양측에 둘 이상의 상이한 질환이 존재하는 경우, 즉 성대구증과 성대용종이 같이 존재할 때 성대구증에 대한 수술과 성대용종에 대한 수술 외에 잘못된 보상을 교정해 주기 위한 음성치료처럼 두 가지 이상의 치료법이 필요한 사례가 42명으로, 전체 대상의 32.8%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양측에 다양한 질환이 존재할 경우에는 각 질환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74>

성대용종이 같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성대용종이 음성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성대구증과 성대용종을 같이 수술하여 준 후에 음성치료로 이차적인 과보상에 의한 발성장애를 개선한다.

<75>

이처럼 성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존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음성변화를 호소할 때는 성대점막의 질환을 가능한 정확하게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존재하는 각 질환에 대한 발생 원인과 발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령 일측 성대용종에 대한 치료로서 성대용종을 수술해 주고, 용종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과도한 발성습관을 줄여주는 음성치료를 적용하여 주는 것이 반대측 성대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었고, 특히 각화증을 나타내었던 반대측 성대 2명의 경우는 일정기간의 음성치료 후에 각화증이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76>

- ①수술하고
- ②줄이는
- ③적용하는 것이

반대로 수술을 하여 처음에 혈관이 커져있는 것을 없애고 혈관의 통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어서 추가적인 혈종을 예방하고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음성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sup>9)</sup> 또 진동면에 따라 발달되는 혈관확장은 결국 성대낭종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대낭종은 단순한 음성치료로는 치료가 어려우며, 수술로써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0)</sup>

<77>

\* 6개월 이상 회비를 일시불로 내  
실 경우에는 10% 할인해 드립니다.

<78>  
한꺼번에 내실  
일시불하실

역시 소아분석

의인 Shapiro와 Katz(1978)은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 社會化(socialization)가 촉진되  
며, 동화라는 안전한 假想空間(imaginary place)에서 발달상의 과제들을 熟達(mastery)  
함으로서 자아발달을 이룰 수 있다 하였다. 위와는 약간 달리 Cath와 Cath(1978)  
는 後成說(epigenetic) 관점으로 동화를 본다. 즉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이상(ego-  
ideal)과 아이 일상생활에서의 좌절(frustration)간 衝突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극복  
하는 과정으로서 동화가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동화를 읽고 듣는 과정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함으로써 부모는 자신의 어린시절 경험을 재경험하여 이를 다시 아이와 공  
유하게 되고, 아이에게는 자신의 현재경험을 동화라는 안정된 틀 안에서 어머니와 공유할  
수 있는 交感의 場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79>  
①사이를  
②을 재경험하여

게 성의 개념을 확대시켰지만 어린이의 성욕의 질(quality of sexuality)을  
회색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아와 어린이가 성적 소원을 갖고 있  
으며 성행위(sexual behavior)를 하고 있다는 결론은 Freud가 그의 어린  
환자들의 치료과정중에 얻어진 자료를 재구성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80>  
(남녀) 어린이가

Freud는 1910년 'Leonardo da Vinci와 그의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Leonardo의 어린 시절의 기록과 그의 아동기 때의 기억과 가능한  
Phantasy를 토대로 엮은 것으로 이것은 훗날 Freud의 homosexuality의 한 아형에  
대한 생각과 Narcissism의 개념을 아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Freud는 Leonardo의

<81>  
아동기에 대한

그러나, 이처럼 정도가 심해 性格障礙라고 分類되지는 않더라도, 一般精神  
症 환자를 비롯하여 健康한 一般人들에게 까지도 自己愛는 이미 成長過程에  
서 性格을 成形하는 중요한 要素이라는 것이 素論입니다.

<82>  
요소(要素)라는 것이 .

그녀는 "그래, 여기서 나는 희생자의 劇을 훌륭히 해내고 있어..."라고 말  
하는가 하면 때로는 analysis로부터 도망했으면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당  
신(analyst)은 그 長期間 동안 analytic training을 받은 후에 나(K)같은  
者の 입에서 떨어지는 신통찮은 말짓거리를 들어야만 하니 그 처지가 불쌍  
하다고도 했습니다.

<83>  
장기간(에 걸쳐)

왜냐? 이는 바로 호랑이가 아이들에게는 '나쁜 부모상'이기도  
하고 또 자기 내부의 '악'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이 동화  
이야기에 자극받아 반대로 대상관계(부모와의 관계)를 촉진하고, 현실인식을 강화하  
며, 자신의 원시적 초자아(primitive superego)에서 오는 명령을 누그러뜨리게 된다.

<84>  
동화(童話)에  
이야기에



이런 맥락에서 Fairbairn은 정신병리학을 자아와 자아 내부에 내재화된 대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 규정짓기도 했다. 한편 Loewald, Sandler 같은 사람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아와 엄마 사이의 정서적 틀이 욕동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데 반해, Kernberg는 욕동을 보다 상위체계에 위치한 동기체제로 보고 정서는 그런 욕동을 이루는 구성요소들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시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85>  
있는

왕자나 공주가 계모의 박해를 받고, 계부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아이들은 무서운 아버지와 무서운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말에 이르러 결국은 계모나 계부가 벌을 받고 학대받던 왕자나 공주, 또는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게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된다. 어린이로서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임을 감안할 때 부모가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은 가히 가공할 만큼 공포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동화에는 그런 부모가 등장한다. 만약 친부모라면 차마 무섭게 묘사하기 힘들겠지만 다행히도 계부나 계모이다. 어린아이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없이 동화속의 계부나 계모를 미워할 수가 있다.

<86>  
가공(可恐)할 만한

Oedipus가 탄생하였을 때 그의 부모는 신략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고자 발을 꿰뚫어서 끈으로 묶은 다음 그를 산에다 버렸다. 그가 생후 2~3일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때 발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그의 발은 퉁퉁 부었고 여기에서 퉁퉁 부은 발이란 의미의 Oedipus란 이름이 유래한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 발의 상처로(인하여) 생긴 상흔은 아마 Oedipus에게는 일생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상흔의 원인이 궁금하였을 것이다.

<87>  
①혼적/흉터  
②버려진 아이  
기아(棄兒)

그는 발의 상처가 수치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며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자기를 내어다 버렸다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른다. Vellacott(1971)에 의하면 당시에는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흔하였기 때문에 Oedipus가 발의 상흔을 보고서 자기가 버려진 기아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Oedipus가 자행한 살부간모의 행동화(acting out)와 정신병질적 행동(psychopathic behavior)의 기원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88>  
기원은 무엇일까?

살부간모라는 충동이 억압되지 못하고 행동화한 것은 그의 정신발달 수준이 아직은 억압(repression)을 통한 조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Rascovsky와 Rascovsky(1968)에 의하면 행동화와 정신병질적 행동의 원인은 모의 무의식적인 유아살해 욕구에서 기인한다. 그에 의하면 유아는 이런 박해적 특성을 갖고 있는 모를 내재화한다. 유아가 생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를 통해서 받는 박해적 성격의 충격들, 예컨대 모의 임신, 출산, 아이의 포경수술, 수유상의 문제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자행되는 각종의 유기행위 등은 유아의 적개심을 고조시키며 그 결과 아이의 망상-분열상태(paranoid-schizoid position)에의 고착을 강화시킨다.

<89>  
검은 머리  
흑발

K는 작은 편으로 나이보다는 젊게 보였으며 긴 흑발 머리를 그대로 길게 내리고 있었고

이미 다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90>  
실을 수, 게재할 수

### 3. 어법과 표현

불면증이란 잠들기가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수면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매우 흔한 질환으로 성인 3명중 1명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10명중 1명정도는 만성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1>

증세를 말합니다.

많이 모이는 극장, 공공장소, 백화점, 식당 등은 가능한 피하십시오. ① 이러한 주의는 여러분의 면역상태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신 후 ② 가능한 시기가 되면 친구와 어울려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시기는 이식 후 100일 정도까지입니다.

<92>

① 가능한 한

② ※식제한.

③ 공공 장소에 갈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 치료성적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 1, 2기 암의 경우 치료 후 10년뒤에 살아 있을 확률은 70%가 넘는 등 다른 암에 비해 월등히 좋은 예후를 나타내며 3기, 4기 암도 양호한 치료성과를 보인다.

<93>

적절하게 치료를 했을 경우

몸우리 외에도 피부가 함몰되거나 유방 통증과 젖꼭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①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다. 유방의 통증은 대부분 압과 상관 없는 양성질환에서 나타나나 때로는 암종과 동반하여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유방진찰 후 유방의 병변을 찾기 위해 먼저 유방촬영을 하게 되며 진찰소견에 따라 ③ 유방초음파를 같이 하기도 한다.

유방촬영 후 ③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양성혹과 감별하기 위하여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하게 된다. 세포검사는 매우 정확한 검사로 암과 양성 혹을 구별해 준다.

<94>

① 유방암일 소지가 있다.

② 유방 초음파 검사

③ 유방암이 아닌지 의심되거나

서울대학교병원은 3차 진료기관 중에서도 국가 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로 전국에서 환자가 내원하며 그 중 많은 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관찰이 필요하여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지방거주 환자의 경우는 본원에 내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환자가 거주하는 곳의 거리가 멀수록 증가하게 되어 본 진료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하게 된다.

<95>

①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②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비인후과 질환중 가장 흔한 질환중  
에 하나로 서구에서는 약 10~20%의 이환율을 보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알레  
르기성 비염은 면역기전에 의한 제1형 과민성 질환으로 유  
전요인과 환경요인이 발생기전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되어가는 주위환경의 변화로 인  
해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기인 항원의 분포도 계속  
변화한다는 점과 지역에 따라 분포하는 항원이 다르다는 점  
에 의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인 항원분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여러저자들에 의한 기인성 항원에 대

<96>

- ①에서 (매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 ②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 ③항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으나
- ④이 서로 달라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 ⑤결과가 필요한
- ⑥추세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별로) 없다.
- ⑦조사 활동이 부족하므로
- ⑧진단에서 보이는(나타나는) 의의(意義)도

#### 알레르기 피부시험

영국 Bencard사와 일본 Tori사의 단자검사용 히스타민  
용액, 음성대조시약을 포함하는 55종의 항원시약을 사용하  
여 환자의 등에 단자시험을 시행하여 스칸디나비아 알레르  
기협회(Scandinavian society of allergology)의 판정 기  
준으로 양성 대조시약인 히스타민 용액 반응의 1/2 이상 크  
기의 팽진을 보이는 2+ 이상을 알레르기 피부시험 양성으  
로 판정하였다.

알레르기 피부시험에 사용된 항원의 종류는 먼지 및 진드  
기류가 3종, 화분류 12종, 동물상피류 9종, 진균류 7종, 식  
품항원 15종, 기타 항원이 7종이었다.

#### 비즙 도말검사

비즙채취는 면봉을 하비도 중간 1/3지점에 넣고 5분정도  
경과 후 면봉에 묻은 비루를 슬라이드에 바로 도말하는 면  
봉도말법을 이용하였다. 비즙도말표본은 Wright-Giem-  
sa 염색후 검경하여 염증세포 100개당 호산구수로 산출한  
호산구 백분율을 계산하여 호산구가 염증세포의 10%이상  
점유하였을 때를 양성으로 판독하였다.

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대상 환자군과 사용 항원 및 알레르  
기 피부시험의 시행시기 및 대상지역 차이로 비교가 어려웠  
고 특히 장기간의 피부시험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인성 항원  
의 시기별 추세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부산지역의 기인성 항원에 대한 연구는 황 등<sup>1)</sup>이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보고하였고 강 등<sup>2)</sup>  
이 부산지역 공중비산 화분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으나 전  
체 연령군에 대한 기인성 항원 전반에 대한 부산지역에서의  
분포를 알기 위한 조사는 부족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1981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성문도 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에서 시행한 3159명  
의 알레르기 피부시험의 성적을 분석하여 연도별 빈도, 기  
인 항원의 분포와 추세변화를 조사하여 알레르기성 비염의  
변화 양상과 부산지역에 있어 기인 항원의 지역적 특성을  
알고자 하였다. 아울러 비즙도말검사의 결과도 함께 분석하  
여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에서의 의의도 함께 조사하였다.

<97>

- ①용액과 음성 대조 시약을 포함한 항원 시약 55종을 사용하여
- ②하였다.
- ③판정은 ~ 양성으로 보는 스칸디나비아 알레르기협회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98>

- ①경과한 후/지난 후
- ②지워 없애는/도말(塗抹)하는

## 환자의 연령별 분포

알레르기 피부시험에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10세미만이 655명, 20세미만 651명, 30세미만 390명, 40세미만 253명, 50세미만 161명, 60세미만 34명, 60세이상 10명이고 최저 3세, 최고 75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20세미만이 1306명으로 60.6%를 차지하였다.

<99>

## 비침도말검사

알레르기 피부시험에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 중 비침도말 검사를 시행한 382명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할 수 있는 10%이상의 호산구 백분율을 보인 환자는 58.6%였고 위양성율은 12.1%였다.

<100>

- ①받은 사람은 382명이다. 이 중
- ②위양성률

그러나 한 번에 한 가지씩 항원을 검사해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 위양성 및 위음성의 가능성과 검사시간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어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특히 전신 과민반응을 초래할 위험성 등의 단점으로 많은 수의 환자에서는 시행이 곤란하여 실제로 임상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기인 항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검사는 알레르기 피부시험이다.

<101>

- ①결린다는 점/소요된다는 점
- ②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으로 많은 수의 환자에게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표피내에 주입하여야 하나 피하에 주입되면 반응이 부정확한 단점이 있다.

<102>

음성변화를 야기시키는 양성성대질환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음성치료 및 성대미세수술 등을 통하여 음성기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비인후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져온 질환이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기계공학의 발달로 성대에 생긴 미세한 병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확하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방법들이 개발되었으며, 좀 더 좋은 음성을 내기 위한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만들어져서 양성성대질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음성변화가 지속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음성변화를 나타내는 원인으로서는 상이한 치료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서로 다른 질환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복된 질환 각각에 서로 다른 치료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거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치료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3>

- ①야기하는/일으키는
- ②그러나 이렇듯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하여도/하는데도
- ③원인이
- ④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 ⑤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아 치료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洪吉童傳」을 보는 여러가지 분류는 기실 許筠의 심리세계가 작품에서 여러 형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를 각각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표현하는 영웅에 대한 시각을 개인의 나르시즘의 성장과정으로 본다면 「洪吉童傳」은 신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의 차이에 따라 창조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洪吉童傳」은 한국인의 나르시즘의 성장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洪吉童傳」에서 한 영웅의 탄생은 그와 호흡을 같이하는 작가와 독자의 의식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洪吉童傳」의 구성방식을 보면 여기에 작가의 무의식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李在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洪吉童傳」의 사건들은 인과적 계기가 없이 임의로 연결되어 있다. 갈등이 울도국을 건설하는 말미부터 앞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 종잡을 수 없는 구성이며, 갈등 또한 계기만 될 뿐 심화 발전되지 않고 회피되고 있으며, 인물 역시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제면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홍길동전의 주제는 <sup>2</sup>애매하다. 비범한 서출 홍길동의 일대기 혹은 출세담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무리 적서 차별이 심한 사회의 서출이라도 저만 뛰어나면 가문도 빛내고 부귀영화가 누릴 수 있다는 일종 토속적 운명론이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할까? 구

<104>

- 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모호하다.
- ③ 서출(庶出)
- ④ 적서(嫡庶)

나는 전에 IPA대회, 국제정신분석역사학회, London대학이 주최한 Sandler교수 정년퇴임기념 「文學과 정신분석」 국제학술대회에서 그의 발표를 들은 바 있는데, 박력과 언변, 4개국어의 능수능란한 실력과 지식, 명쾌하고 단호한 논리에 압도당했었다. 이번에 그는 영어로 발표하였고, 뜻깊은 대개 이리하였다. — ① 정신분석 초기 Freud는 히스테리아의 모든 원인이 환자가 어려서 받은 유혹(seduction)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외상'으로 간주하다가, 1920년 이후에는 신경증의 원인을 不安(anxiety)으로 보는 것으로 견해를 바꿨다. 즉 Freud는 초기에 외상설(trauma theory), 또는 유혹설(seduction theory)을 주장하다가 후기에 불안설(anxiety theory)로 신경증의 원인론을 바꿨다. 그런데 Ferenczi가 1920년 이후 동판지처럼 外傷重觀라는 뒷북을 쳤으니 Freud에게는 그가 分派해 나가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105>

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실력과 지식,

그는, 예컨대, 그녀를 심하게 비난하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파티에서 나가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췌피를 즐긴다. 그는 그녀에게 극도로 화가 나 있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때면 그녀는 굴욕감과 우울에 빠질 뿐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왜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웁니다. 성생활은 이때끔씩 갖고 있으며 만족감이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성생활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불평합니다. 그녀는 성교에서 오르가즘(orgasm)을 못느낍니다. 그녀는 자주 자위행위를 하는데 이때에야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106>

하고 있으나

이 동화에서 하느님이 아이들은 구하지만, 악한 호랑이를 직접 벌하지 않고 다만 3개월 후 도망가게 내버려 둔다. 즉 호랑이가 비록 어머니를 잡아먹었지만 죽어야 할 정도로 강한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으로 수위가 조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07>

다치게 한 후

①또한 환상 췌장(annular pancreas)은 췌장의 발생시에 복측 부분과 배측 부분이 융합될 때의 이상으로 십이지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측 췌장이 반대편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18-1)②이런 경우 십이지장의 불완전한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이소성 췌조직(aberrant pancreas)과 췌관의 기형은③아래에 잘 기술된다.

①이소성 췌조직(aberrant pancreas)은 췌장의 조직이 해부학적으로 본래의 위치가 아닌 곳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②부검시 약 2%에서 발견된다.③가장 흔한 부위는 위와 십이지장이며 Meckel 계실이나 회장 등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①췌관의 기형(anomalies of pancreatis ducts)은 심한 임상증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외과 의사가 이 기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찰을 한다거나 절단

을 하게 되면 심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태생기에서는 그림 18-2와 같이 복측췌관과 배측췌관이 따로 발생하여 융합이 되어 배측췌관의 주요부분이 Wirsung 관이 되고 그 부수적인 관으로 Santorini 관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이 관들의 개구부위가 정상 부위가 아니어서 총담관의 중간부위나 십이지장의 상부에 개구될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 밖에 췌장이 분할된 상태로 존재할 경우는 '분할췌'(pancreas divisum)라 명명되는데 이는 재발성 췌장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갖고 있다.

①췌장 위축(pancreatic atrophy)의 가장 흔한 원인은 췌장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허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sup>K</sup>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여성의 흡연<sup>K</sup>인구 증가가 뚜렷해 향후 폐암이 늘어<sup>K</sup>나리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인을 몰라 효과적인 치료를 못하고 있는 수 많은 알레르기 환자들의 치료와 예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108>

①또한 환상(環狀, 고리 모양) 췌장은 췌장이 생길 때 복측 부분과 배측 부분이 융합하면서 생긴 이상(異常)으로, 십이지장을 중심으로 하여 복측 췌장이 반대편에 있게 되는 경우다.

②이런 경우 십이지장이 불완전하게 막히기도 한다.

③(이소성(異所性) 췌조직과 췌관의 기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09>

①'이소성(異所性) 췌조직'은 - 있는 경우를 말하며

②부검 대상의

③이소성(異所性) 췌조직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위는(위와 십이지장이며,) - 등에서도 나타난다.

<110>

①췌관이 기형이면 심한 임상 증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기형임을 알지 못하고(간과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①-1. ①기형 췌관은 심한 임상 증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외과 의사가 -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그 밖에 췌장이 나뉜 상태로 있는 경우를 '분할췌'라고 부르는데, 이는 재발성 췌장염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소인(소지)이 있다.

<111>

①췌장이 위축하는 주원인은 췌장 동맥의 경화증(硬化症)에서 오는 허혈이다.

<1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3>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감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수이식 후 3~4개월 동안에는 술이 저하된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X선 촬영은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골량의 감소가 있어야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불충분합니다.

이번 동물실험의 성공으로 '한 국형 인공심장'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수년내에 말기심장병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① 성숙한 혈구들은 짧은 생존기간을 갖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며, 이 일은 간세포들이 분화를 할 뿐 아니라 자가재생하는 ② 능력을 가져야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재생능력은 간세포들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이다. 전능한 간세포일수록 재생능력이 강하지만, 정상상태에서는 그들이 세포 분열 주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분화전로가 결정되면 재생능력은 제한된다. 정상적으로 다능한 골수계 간세포는 극히 적은 비율만이 분열 주기에 들어 있지만, 지정된 간세포(CFU-G/M)는 50% 가량이 DNA를 합성하며 분열 주기에 들어 있다. ③ 이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혈구의 보충은 주로 지정 간세포의 증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④ 따라서 식별이 가능한 가장 초기의 전구세포(예컨대, 골수모구, 적모구)는 왕성히 분열은 하나 자가재생은 하지 못하고 다만 성숙하여 죽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은 이미 간세포가 아니다. (종착)

CSF는 대식구와 T세포에서 유래되며, 에리트르포이에틴은 주로 ⑤ 신장에서 생성되고 간에서 활성화 된다.

CFU-E의 분화에서 T세포 또는 그 산물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도 있다. 그리하여 적모구, 거핵세포, 과립구 및 ⑥ 대식구의 혼합으로 된 집락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론적으로 이 혼합집락은 다능한 ② 간세포에서 유래되어야만 여러 종류의 집락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 새로운 기법은 비단 발생 생물학자들 뿐만 아니라 병리학자들에게도 매우 흥미를 끄는 방법이다.

<114>

감염될 위험성이/감염될 소지가 많습니다.

<115>

50% 이상 골량이 줄어들어야 진단할 수 있을  
 로

<116>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117>

- ① 성숙한 혈구들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하므로 계속적으로 보충해야 하며
- ② 능력이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다.
- ③ 이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혈구는 주로 지정 간세포가 증식하면서 보충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 ④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최초의 전구 세포는 왕성하게 분열은 하나 자가 재생은 하지 못하고 성숙하기만 하면 죽어 간다.
- ⑤ 신장에서 생성되고 간에서 활성화한다.
- ⑥ 대식구가 혼합한 집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 ⑦ 간세포에서 비롯되어야만(나와야만) 집락을 다양하게 형성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골수가 조혈을 하는 데 있어서 미세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는 골수에 모든 세포를 침범하는 골수 기능부전의 어떤 형, 예컨대, 재생불능성 빈혈의 한 형에 있어서는 결합이 골수 간세포보다 미세환경에 있으며, 따라서 이런 환자들이 골수 이식을 받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오랫동안 실험적 연구에서 다능한 조혈간세포를 체외배양에서 보존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Dexter가 골수기질(내피세포, 지방세포, 외피세포)을 첨가함으로써 체외배양에서 다능한 간세포를 보존하는데 성공한 사실이다. 이 Dexter 기법은 골수 간세포의 체외생존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수개월 동안 재생활동도 계속하게 하였다. (중략)

③ 가장 초기단계의 골수계 세포, 예컨대 적모구, 골수 모구 및 단모구 등은 다같이 크고, 다량의 염기성 세포질을 가지며, 두껍게 뭉친 염색질을 가진 둥근 핵과 뚜렷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어 조직표본에서 이들 각종 모구를 감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흔히 이들 모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성숙한 주위 세포의 종류에 따라 잠정적으로 추정하게 되며, 과립구로 싸여 있는 모구는 골수모구일 수가 있다. 보다 더 성숙이 진행되면 세포의 종류를 비로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① '탈수증(dehydration)'이란 체내 수분이 정상치 이하로 떨어지는 수분평형의 장애이다. 이때는 전해질의 이상이 동반된다. 탈수증은 수분이나 Na의 상실로 초래되며 보통 수분이 소실되면 Na도 같이 소실된다.

① Na의 소실이 동반되지 않는 순수한 수분의 소실, 즉 일차성 탈수증(primary dehydration)은 매우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첫째, 수분의 섭취가 제한됨으로써 일어난다. 식도폐쇄라든가 심한 신체질환에 의해 물을 마실 수 없거나 정신적 질환에 의해 물의 섭취를 거부하는 환자.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이나 바다에서 조난 당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둘째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항이노호르몬(ADH)의 결핍으로 인해 신장의 소변농축능력이 소실되어 수분이 소실되는 요붕증이다. 탈수가 되면 세포외액의 Na 농도가 올라가 고장상태(hypertonicity)가 되어 세포로부터 수분이 세포밖으로 빠져나옴으로써 세포내 탈수(intracellular dehydration)가 일어나며 갈증이 생긴다.

<118>

- ① 체외 배양에서 다능한 간세포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 ② 골수 간세포가 체외 생존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 ③ 처음 단계(최초 단계)
- ④ 다 같이 크고 염기성 세포질이 다량 있고,
- ⑤ 두껍게 뭉친 염색질이 있는 둥근 핵과 뚜렷한 핵소체가 있어
- ⑥ 더욱 성숙하게 되면

<119>

- ① '탈수증'이란
- ② 이 때에 전해질 이상(異常)이 따른다.
- ③ 탈수증은 수분이나 나트륨(Na)이 빠져 나갈 때 생기며/수분이나 나트륨(Na)을 상실할 때 나타나며
- ④ 수분을 잃으면 나트륨도 대개 함께 잃게 된다.

<120>

- ① 나트륨 소실이 따르지 않는다
- ② 수분 섭취가 제한될 때
- ③ 신체 질환으로
- ④ 정신 질환이 있어 물 섭취를
- ⑤ 떨어져
- ⑥ 요붕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 ⑦ 빠져 나와



①분비선세포는 정상적으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효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보호되고 있는 기전은 세포질 내의 구조, 비활성형 효소의 함유 및 trypsin inhibitor가 있다. 세포질내 구조로는 형질내세망, 골지체 및 효소 원과립을 둘러싸는 막이 있고 비활성형 효소의 대표적인 예는 trypsinogen 이다. trypsin inhibitor는 혈액, 간질 및 혈장에서 발견된다. 세포내에서 효소가 활성화되면 세포질내 구조들이 손상되고 자가탐식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괴사가 유발된다. 트립신은 다른 효소의 전구물질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소이다. 즉 chymotrypsinogen, pro-carboxypeptidase, proelastase 및 prophospholipase를 활성화시킨다. 췌분비선세포가 사소한 손상을 받은 흔적은 정상 췌장에서조차도 세포질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가탐식성 공포가 있으므로 해서 짐작된다. 그런데 이 자가탐식성 공포의 숫자는 손상의 정도와 비례한다. 세포괴사는 세포질내에 있던 효소를 간질에 유리시키는 계기가 되어 주위 세포로 하여금 그 효소의 영향을 받게 한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됨으로 인하여 세포괴사부위는 점점 광범위해지게 된다. 또한 lipase에 의하여 분해되어 지방괴사를 일으키고 elastase 및 protease는 주로 혈관벽을 용해시켜 출혈이 유발된다.

급성췌장염은 응급질환이며 환자는 대부분 폭음 및 폭식 후에 갑자기 발생한 복통을 주소로 병원에 오게 된다. 췌장부위의 괴사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통증은 매우 심하여 이 통증만으로도 숨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열, 빈맥 및 저혈압을 일으킨다. 이 저혈압의 기전은 아마도 유리된 bradykinin이나 prostaglandin과 같은 혈관 확장성 물질로 인한 것이다. 환자의 복부에서 계대주위에 흐린 청색으로의 변색을 볼 수 있는데 이를 Cullen 징후라 하며 이는 복강내 출혈로 인한 것이다. 검사실 소견으로 혈청내의 amylase 및 lipase의 증가가 있는데 이는 췌장염의 진단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일과성인 당뇨병이 있을 수 있으며 황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총담관의 부종으로 인한 부분적인 폐색으로 인한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① 정도의 차이는 증례마다 있으나 주로 부종만이 나타난다. 이런 연유로 해서 '부종성 췌장염'이라고도 불린다. 이 때는 분비선세포, 간질 및 췌장 주위조직에 괴사가 전혀 없다.

<121>

- ①분비선 세포는 그 자체에 있는 효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
- ②이 보호 받고 있는 기전에는 ~가 있기 때문이다.
- ③괴사로 나타난다.
- ④활성화할 수 있는
- ⑤산재(散在)하는/흩어져 있는
- ⑥있으므로 짐작할 수 있다/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 ⑦주위 세포가 그 효소의 영향을 받게 한다.
- ⑧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므로/거듭되면서
- ⑨또한 lipase가 분해하여 지방 괴사를 일으키고
- ⑩출혈을 유발한다.

<122>

- ①사망할 수도 있다. 사망하기도 한다.
- ②아마도 ~혈관 확장성 물질 때문일 것이다
- ③'Cullen 징후'라 하여 흐린 청색으로 색깔이 변하기도 하는데, 복강 내 출혈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 ④검사실 소견으로 혈청 내에 amylase lipase가 늘면(증가하면) 췌장염을 진단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 ⑤또한 일과성인 당뇨병이나 황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총담관의 부종으로 부분적으로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부분적으로 막혀서 생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23>

- ①(간질성 췌장염) 정도의 차이는 증례마다 있으나 주로 부종만이 나타나므로 '부종성 췌장염'이라고도 부른다.
- ②간질성 췌장염은 ~

그러나 세포질<sup>N</sup>내에는

① 100nm<sup>V</sup>이상의 막<sup>V</sup>에 둘러싸여진 조밀한 중심부를 가진 과립(membrane-bound, dense-core granule)이 있어 신경능선 기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세포의 기저부는 작은 신경판과 부착되어 있어 ②촉각기계수용기(tactile mechanorecepto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저막대는 광학현미경상에서는 ③한개의 선으로 보이거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매우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그림 25-2, 25-3). 자가면역성 수포성 ④질환시에는 면역글로불린과 보체가 이곳에 침착하여 표피와 진피가 ⑤분리됨으로써 수포가 발생한다. 진피에는 교원섬유 및 탄력섬유가 특별한 형태가 없는 기질(ground substance)내에 분포하고 있다.

<124>

- ①100mm가 넘는 막으로 둘러싸인 촘촘한 중심부를 가진 알갱이(과립)가 있어
- ②촉각기계수용기 구실을 하는 것으로
- ③선(線) 하나로 보이거나
- ④질환에 걸릴 때에는
- ⑤분리되면서 수포가 생긴다.

①골은 성장하면서 길이 뿐만 아니라 폭과 두께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서 최종적인 골모양을 형성하는데 이를 총칭하여 '골의 모형화'(Bone modeling)(그림 26-7)라 한다. 성장판에서 ②세포증식으로 인한 길이성장을 '연장'(elongation). 골간단인 골간보다 지름이 큰 것은 골간단의 골막쪽은 골흡수가 ③왕성하며, 이 부분을 "metaphyseal cut-back"이라 하며, 골내막쪽은 골형성으로 잘대기화(funnelization)가 일어난다. ④골간의 표면은 막내골형성, 골내막은 골흡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질골의 두께와 지름이 증가하는데 이를 '원통화'(cylinderization)라 한다. 연골내 골화가 관절연골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골단의 반구가 커지는데 이를 '반구화'(hemispherization)라 한다.

<125>

- ①골은 성장하면서 길이뿐만 아니라, 폭과 두께도 함께 변화하여
- ②세포가 증식하여 길이가 늘어난 것을 '연장'이라 한다.
- ③왕성한데
- ④골간의 표면은 막내골을 형성하면서, 골내막은 골을 흡수하면서, 결과적으로 피질골의 두께와 지름이 늘어나는데 이를 '원통화'라 한다.

신경계 질환이 다른 장기의 질환과 ①다른 점은 신경계의 해부학적 및 조직학적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126>

- ①다른 점은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중이염은 중이강<sup>V</sup>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성 내지 화농성 질환으로 정의하며, 중이강<sup>V</sup>내에 저류액을 동반하는 삼출성 중이염은 1867년 Politzer가 처음 보고한 이래 급성중이염의 일환으로 생각되었다. 2차대전 이후 항생제의 남용과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급성중이염의 빈도는 감소하는 반면 삼출성중이염의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성인에서의 삼출성중이염은 소아에서보다 난치성이고 재발이 많으며 비인강을 포함한 두경부종양, 전신적 질환 등에서 병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127>

항생제를 남용하고 부적절하게 치료하여



## 투고규정 변경 안내

※ 현행 투고 규정 14번 다음에 아래의 조항들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원저 또는 증례보고는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 접수시 점검 사항” 목록을 대조하여

① 각 항목이 충실히 지켜졌는지에 대하여 저자가 원고를 검토하고 □에 V로 표시한 뒤 원고와 함께 학회로 보내야 한다.

16. “논문 접수시 점검 사항”의 ②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점검사항을 동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저자에게 돌려보내어 투고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접수 할 수 있다.

※ 투고규정 9번에 있던 “참고문헌은 관련된 국내문헌을 우선적으로 인용하여야 하며”는 삭제되었습니다.

③ 1998년부터 학회에 논문을 보내실때는 위의 사항을 점검하신 뒤 논문을 접수시켜야 심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8>

① 각 항목을 충실히 지켰는지 저자가 □에 V로 표시한 뒤

② 각 항목에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점검 사항을 동봉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저자에게 돌려보낸다. 저자가 투고 규정에 따르면 다시 접수할 수도 있다.

③ 위의 사항을 점검하신 뒤 논문을 제출하셔야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실지 않으며, 본지에 실린 원고는 마음대로 타지에 발표할 수 없다.

- 3) 단신(brief communication 혹은 letter)은 5,000자 이내로 하며, 표나 그림은 ① 2개 이내로 한다. 본문은 서론, 방법 등의 구분 없이 계속된 형태로, 참고문헌은 ② 10개 이내로 한다. 기타 규정은 증례보고와 같으며, 표지 상단에 단신(brief communication 혹은 letter)이라고 표기 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원고 말미에 인용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공저일 경우 6인 이하면 전원을 기록하고 7인 이상일 경우는 최초 3인 이후에 등 및 et al. 로 끝 맺는다. 학술지명은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참고문헌을 ④ 게재할 시 다음 양식에 따라야 한다.

<130>

- ① 2(두) 점
- ② 10편
- ③ 3인(세 사람)을 적고 그 뒤에 '등'이나 'et al.'로
- ④ 적을 때에는/게재할 때에는

### 구독 안내

대한소화기학회지는 대한소화기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① 년 12회 월간으로 발행됩니다. 1995년도 ② 제 27 권 제 1 호부터 비회원을 위한 구독 ③ 회지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소정의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④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구독료가 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본 학회지 구독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기관은 구독신청서와 구독료를 우편환으로 하기 주소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독 료 (우송료 포함)

	개 인	기관(학교 · 병원 · 연구소 · 도서관)
권당가격	2,000원	3,000원
연간 구독료	24,000원	36,000원

<131>

- ① 매월 발간됩니다(연 12회)/다달이 발간됩니다.
- ② 제27 권 제1 호부터 비회원도 구독할 수 있도록 정해진 구독료를
- ③ 평생회비를 내신 분은 구독료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④ 이 학회지를 구독하고자 하는
- ⑤ 다음/아래의



## 4. 어순

### 골수로성 빈혈(myelophthisic anemia)

골수의 공간 점유 병변(space-occupying lesion)은 상당량의 골수를 파괴하거나 골수의 구조에 이상을 초래하여 혈구 생산 능력이 ①저하한다. 이런 골수 부전 상태를 ②골수로성 빈혈이라고 한다. ③특정적으로 골수 구조의 교란에 의하여 파괴된 혈관-골수 장벽을 뚫고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미성숙 세포들이 말초 혈액에 나타난다. 이런 현상 때문에 ④백적모구성 빈혈(leukoerythroblastic anemia)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골수로성 빈혈의 ⑤가장 흔한 원인은 전이암으로서 흔히 유방, 폐, 전립선, 갑상선, 부신이 원발성 병소가 된다.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경화증 그리고 악성 림프종의 경과V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골수 섬유증에 속할 수도 있다.

기전은 ⑥잘 모르지만 독성, 감염성 혹은 간경변증 같은 미만성 간질환 때 골수 부전에 의한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빈혈을 동반하게 되면 빈혈은 요독증의 정도와 거의 비례한다. ⑦이V때 빈혈은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⑧적혈구 자체의 결합에 의한 만성 용혈, 요독증 때 흔히 나타나는 출혈 성향에 의한 철 결핍, 혈액V내 노폐물에 의한 골수의 조혈 억제, 신장의 파괴로 인한 에리스로포에틴(erythropoietin)의 생산 저하로 인한 적혈구의 생산 감소 등을 그 발생기전으로 추측한다. 최근에는 신부전 환자에게 빈혈을 ⑨치료하기 위하여 재조합 에리트로포에틴을 투여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진단①은 대체로 말초 혈액 검사와 골수의 생검에 의존한다. 백혈구 감소증은 재생 불량성 빈혈 외에 무백혈구성 백혈병(aleukemic leukemia)과 골수 이형성증(myelodysplastic syndrome)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증상 및 말초 혈액 소견 만으로는 이들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백혈병과 골수 이형성증의 골수는 미숙한 ②골수 세포의 증식으로 세포 밀도가 오히려 높다.

재생 불량성 빈혈의 예후는 예측할 수 없다. 앞에서 ③언급했듯이 독성 약제를 끊으면 ④어떤 예에서는 회복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발성 유형은 예후가 불량하다. 골수이식은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⑤환자에서 효과적이다. Antithymocyte globulin V 등 면역 억제제의 치료로 효과를 보기도 한다.

<132>

①저하된다/떨어진다/낮아진다

②'골수로성 빈혈'

③이 빈혈은 골수 구조의 교란으로 파괴된 혈관-골수 장벽을 뚫고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미성숙 세포들이 말초 혈액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어순)

④'백적모구성 빈혈'(leukoerythroblastic anemia)이라고도 부른다.(※간결성)

⑤원인은 대부분(※어순)

⑥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⑦이 때 빈혈은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⑧적혈구 자체의 결합으로 생긴 만성 용혈, 요독증 때 흔히 보이는 출혈 성향에 따른 철 결핍, 혈액 내의 노폐물 때문에 발생하는 골수의 조혈 억제, 신장 파괴로 초래된 에리스로포에틴(erythropoietin)의 생산력 저하로 인한 적혈구의 감산(減産/생산량 감소) 등을 발생 기전이라고 추측한다.(//보고 있다)

⑨치료하고자

<133>

①(진단)은 대체로

②골수 세포가 증식하여

③말했듯이

④회복되는 예도 있다.(※어순)

⑤환자에게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약 7500명의 훈련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134>

훈련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정신분석가가 전 세계에 약 7,500명이 있다.

Grigg(1973)에 의하면 Freud의 기차충격은 그녀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Freud가 개업한 날이 1886년 4월 26일인데 이날은 부활절 일요일로서 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가톨릭 신자인 그녀에 대한 또는 그녀의 종교에 대한 반항이거나 아니면 그녀와 재결합을 위한 시도라고 하였다.

<135>

Dr. Bianchedi 세미나를 계기로 오랜만에 한국분석학회회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 모두들 한결같이 반겨주셔서 세미나 참석을 무척 편하게 할 수 있었다. Dr. Bianchedi부부는 인자한 할머니 할아버지같이 느껴졌으며 체구가 크고 당당한 할아버지와 인자하면서도 명석해보이는 할머니 부부였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두 분중 Dr. Bianchedi(Elizabeth Bianchedi)는 영어가 능통한 반면 부군인 Dr. Bianchedi(Marcello Bianchedi)는 영어가 짧았다. 할머니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할아버지의 스페인어를 번역하였으며 때때로 '이것은 내 남편의 의견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여 이야기하는 부부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Dr. Bianchedi는 자신이 Bion의 수제자라고 하였으며 정신분석가이면서 이론가였다. 부군인 Dr. Bianchedi는 정신분석가이면서 활동적인 임상가였다. 모습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지만 일에 대한, 환자에 대한 열의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대로 전달되어와서 환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들었다. 다음에는 세미나 전반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개인적으로 인상깊게 느꼈던 Dr. Bianchedi부부의 생각과 태도들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136>

## 5. 文套

### ※ 번역투

그는 특히 예술가의 신화적인 면을 조사하였다. 미술가와 조각가들은 Prometheus, Hephaestus, Daedalus 같이 신과 경쟁했던 문화적 영웅의 자손으로 칭송되어진다: 창조자로서의 예술가는 마술사의 힘을 부여받았고 그것 때문에 반란과 경쟁의 죄목으로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왔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들이 보헤미안 거주지인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된다. 예술가는 사라져 없어져버리는 것을 보존한다.

<137>

①칭송된다.

②받았고

: 예술가는 자연을 재현하는 것도 모방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세계를 조절한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이 그것을 완전히 가졌다고 느낄 때 까지 자신의 눈에 그것을 담는다. 내부로 함입(incorporated)되고 시각으로 재출현하기 까지 그리고 색칠하고 조각하는 일은 매우 긴 활동이다. 지질의 모든 선, 모든 점은 현실이 축소되고 단순화된 것이다. 이러한 것의 무의식적 의미는 파괴의 덧가르로 조정(control)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파괴된 것은 이미지의 건축과 합쳐진다. 선이 모양으로 합쳐지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때 자연의 미소는 사라진다. 비슷함의 수준이 아니라 자연은 재창조되는 것이다(Kris 1953).

Freud는 환자가 어느 한 면접시간에 와서 이야기하는 여러개 꿈들에는 상호연관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 발현몽에서 「A인지, B인지 확실치 않지만……」 (A or B)으로 나오는 경우는 「A와 B」로 보라 하였다.

<138>

몇몇 꿈에는

정신분석에서 대상관계 이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Freud로부터 그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Freud가 대인관계보다는 욕동을 좀더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그렇다고 그가 대상관계에 대한 개념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비록 정신내부의 대상(internal object)에 대한 개념이 Melanie Klein에 의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지만, 이 개념에 대한 언급은 Freud의 초기 논문들에서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Studies on Hysteria>에서 전이란 환자가 어린 시절 지냈던 소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현재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잘못 연결시키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Breuer and Freud,

<139>

개념을 ~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쓰기

부모에 의한 자식의 유기는 Oedipus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정신적 외상이며 이는 후에 그의 성격과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140>

부모가 자식을 유기한(버린) 일은

Oedipus Rex는 한 청년이 양부모의 집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신의 성적 욕망과 공격적 욕구를 성취하고 성숙한 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그는 두 번의 장애물에 직면한다. Laius와 Sphinx가 그것이다.

<141>

그 장애물이다.

동화는 어느 특정 발달단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자랄 때까지도 동화는 흔히 어린이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곤 한다. 동화는 어린이의 환상(幻想)으로, 놀이로, 꿈으로 재현되곤 한다.

<142>



### ▲ 병원 학교에 남기고 싶은 말

병원 당국의 충분한 뒷받침은 물론이고 병원의 전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실례를 들면 연구비에 과세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뿐인 것으로 ② 생각된다. 몇천 안되는 연구비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교수들의 지정진료로 ③ 얻어진 재원으로 지급되는 연구비에 보태 주지는 못할 ④ 데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당국을 설득해 조세책도를 개선, 교수들의 연구열을 ⑤ 북돋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병원을 독립시켜 치과병원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린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21세기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추진중인 장기발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 실행돼 지길 바란다.

⑤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부서들은 연초 활동지원금이 지급된 모든 부서와 경진대회 참가를 원하는 부서의 QA활동보고서를 ① 취합해 QA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심사항목으로는 QA활동의 과학성(체계성), 팀워크, 활동의 개선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 활동의 성과에 따라 포상되어지는데 포상부서의 수와 포상금은 여건에 따라 ② 다르 게 이뤄진다.

다음은 그간 경진대회를 통해 활동의 성과가 뚜렷한 부서를 중심으로 몇편을 선정해 소개한 것이다.

① 분리된 튜브는 물에 행귀 소독액에 담근 뒤 건조후 멸균소독을 위해 중앙공급실로 보내진다. 이와 같이 인공호흡기의 튜브를 교환하는 일은 간호시간을 많이 사용해야하므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는 한도내에서 불필요한 교체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시간에 소요되는 간호시간을 줄임으로써 직접환자를 간호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최근 미국 내의 몇몇 연구에서 인공호흡기 사용과 관련한 폐렴발생에 대한 튜브 교환주기를 증가시켜도 폐렴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튜브교환과 이를 증가시켰을 때의 병원감염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143>

- 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② 생각한다.
- ③ 얻은
- ④ 북돋워야
- ⑤ 포함해 실행하길

<144>

- ① 모아
- ② 활동 성과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는데
- ③ 다르다.

<145>

- ① 분리된 튜브는 물에 행귀 소독액에 담갔다가 말리어 중앙공급실로 보내 멸균 소독한다.
- ② 교환하는 일에 간호 시간이 많이 빼앗기므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는 한도 내에서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면 환자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미국의 몇몇 연구에서
- ④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여러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양측 양성성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음성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지속되는 음성변화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치료가 부적절하게 시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환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대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정확하게 관찰하고 진단을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성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성대가 관찰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고, 성대 모양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146>

- ①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힘썼지만
- ② 어려움이 많았다.

저자들의 경우에서도 전체 질환 중 약 15.5%에서 혈관확장증을 나타내었다. 이들이 성대결절이나 성대용종, 레인케부종과 같은 질환과 동반되어 있을 때, 단지 음성치료만을 시행하거나, 주 질환만을 수술하고, 혈관확장증에 대한 적절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변화가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147>

한편 양측 양성성대질환은 남자에 비하여 여성에서 약 3배 많이 나타났고, 그 중 20대에서 50대 까지 가입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러한 질환의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인 여성의 과도한 발성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생리와 관계된 호르몬 장애 등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진단

대개의 경우 유방에 생긴 뭉우리로 <sup>①</sup>진단되어 진단한다. 하지만 뭉우리가 다 암은 아니며 오히려 뭉우리는 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자가진단을 통해 뭉우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진찰에 의해 그 뭉우리가 진짜 암인지 확인해야 한다.

<148>

- ① 진단한다.
- ② 전문가가 진찰하여

## 안일한 사고

방식 속에서 하려는 의욕이 없는 곳에 쓰여지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했었다. 앞으로는 모든 곳에서 이같은 생각이 통용되어질 것이라 믿는다.

<149>

- ① 쓰이는
- ② 통용될

안과 이진학 교수가 제7대 편집인의 중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11인의 편집위원들이 편집진을 이뤄 보다 성숙한 병원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활동 중에 있다.

<150>

좀더/더욱

매일 잠을 설치고 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며 작업효율이 떨어집니다. 만성불면증환자의 상당수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하는 절망감을 표현하곤 합니다.

<151>

표현하기도 합니다/ 곧잘 표현합니다.

이로써 외래진료실이 개보수공사에 들어간 지 2년여만에 제자리를 찾게 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진료가 이뤄지게 됐다.

<152>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세포나 조직은 <sup>①</sup>혈액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정상적인 수분의 평형상태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인체에서는 마른 체중의 60%가 수분이며 40%는 세포내액이고 20%는 세포외액이다. <sup>②</sup>혈액공급의 장애나 수분평형의 장애는 부종, 울혈, 출혈, <sup>③</sup>속, 혈전증, 색전증 및 경색증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장애는 혼란 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의 다수를 차지한다. 즉 심장병의 종말은 폐부종이며 출혈과 속은 응급실에서 늘 볼 수 있고 혈전증, 색전증 및 경색증은 심근 경색증, 폐색전증, 뇌혈관 사고 등으로 나타난다.

<153>

- ①혈액에서부터 산소를 받고 수분이 정상적인 평형 상태 일 때 살아갈 수 있다/생존할 수 있다.
- ②혈액 공급이나 수분 평형에 장애가 있으면



세포는 자신의 기능과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② 가지 신진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많은 효소체제와 소기관들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④ 생명의 가장 기본단위이다. 또한 ⑤ 세포는 내부 및 주위 환경의 변화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자극이 생리적 범위 일 경우, ⑥ 세포는 한정된 범위 내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변

동을 보이거나 곧 안정상태(steady state)로 돌아오는 항상성(homeostasis)을 가진다. 그러나 생리적인 자극의 범위를 벗어난 병적인 자극이 세포에 가해지면 세포는 형태학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⑦ 세포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세포적응(cellular adaptation)과 세포손상(cell injury)이 있다.

세포적응은 생리적 자극이나 비교적 약한 병적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러한 ⑧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포 자신의 크기, 모양, 수 또는 기능을 변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이 변동된 안정상태(altered steady state)를 유지하려고 한다.

염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되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염증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이해는 염증반응에 나타나는 포면적인 특징에 대한 기술(주로 육안적 관찰에 입각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대부분의 유방질환은 덩어리로 촉진되며 가끔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그 중 대부분이 양성질환이지만, 유방암이 점점 ②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유방암이 ③ 암사망 순위중 2위이며 ④ 치명적인 여성질환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임상적으로 유방암과 혼동될 수 있는 ⑤ 경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뇌하수체 기능항진증(hyperpituitarism)이란 전엽 항성 호르몬의 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분비 증가를 뜻하는데 대개 ① 기능성 종양(functioning tumor)에 의해 발생하지만 시상하부에서 기원할 수도 있고 표적장기 호르몬에 의한 ② 음성 귀환 기전 상실에 따라 생길 수도 있다. 하수체 기능저하증(hypopituitarism)은 ③ 보다 다양한 발생요인을 가지며 전엽의 75% 이상이 파괴되었을 때 나타난다.

<154>

- ① 유지하려고/유지하고자
- ② 신진대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며
- ③ 구성되어 매우 복잡한,
- ④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 ⑤ 세포는 내부나 주위 환경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 자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 ⑥ 세포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구조적·기능적 변동을 보이다가 곧(이내)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 항상성이 있다.
- ⑦ 세포 반응은 세포 적응과 세포 손상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⑧ 자극을 받으면

<155>

- ① 염증을 우리가 처음 이해하기로는

<156>

- ① 유방 질환의 대부분은 덩어리로 만져지며
- ② 높은 빈도
- ③ 암으로 사망하는 순위 중
- ④ 치명적인 여성 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 ⑤ 몇몇 경우를

<157>

- ① 기능성 종양 때문에 생기지만
- ② 음성 귀환 기전을 상실하면서
- ③ 발생 요인에는 더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유전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보되어서 최근에는 새로운 중후군의 기술, 유전자 좌우의 발견, 유전자형과 면역 능력 사이의 상관성 및 ①유전적 암호의 본질에 대한 탐구 등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②유전질환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③이들은 유전자형에 의해 정의되고 ④또한 일반적으로 인간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환경적 인자에 의한 것, 유전적 인자에 의한 것, 그리고 이들 양자의 복합에 의한 것 등의 3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⑤미생물학적 감염이 환경적 인자에 의한 것 같지만 면역능력의 조절에 있어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역할이 밝혀짐에 따라 미생물에 의한 질환도 유전자에 의해 일어남이 분명해졌다.

환경과 유전적 인자에 의한 질환은 인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환이 속하는데 즉, 위궤양, 당뇨병, 동맥경화증, 정신분열증 및 암 등을 들 수 있다.

호염기구는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 의미있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호산구의 증가 정도와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져왔으나, 실제 임상적으로 크게 중요시되지는 못하고있으며,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서도 상당수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Jang 등<sup>1)</sup>은 비염에서 호염기구의 출현은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에 높은 진단적 특이도를 가지며,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심할수록 많은 수의 호염기성 세포가 관찰되어 호염기구가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7

현훈 환자증에는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도 안진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강한 안진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지러움증만을 호소하기도 하며, 호소하는 어지러움증의 표현도 회전감(回轉感), 부동감(浮動感), 안전암흑감(眼前暗黑感) 등 다양하고, 온도안진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안진의 방향도 환자가 호소하는 회전감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979년부터 1995년까지 만 17년간 전주예수병원에 서 갑상선 증상으로 수술 받은 17세 미만의 소아 환자 중 임상기록, 수술기록, 조직병리학적 결과 및 각종 검사결과 등의 보존이 확실한 33명을 후향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158>

- ①유전적 암호의 본질에 대해 계속 탐구하고 있다.
- ②유전 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 ③유전성 질환은 유전자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④또한 인간에게 생기는 질환은 환경적 인자로 생기는 것과 유전적 인자로 생기는 것, 그리고 환경적 인자와 유전적 인자의 복합으로 생기는 것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⑤미생물학적 감염은 환경적 인자로 생기는 것 같지만 면역능력을 조절하는 일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어떤, 구실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생물로 인한 질환도 유전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59>

- ① 보이며
- ② 구실을

<160>

<161>

각종 검사 결과의



## 6. 문장의 길이

합기화된 중비갑개는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비중격 만곡증과 함께 가장 빈번한 폐쇄성 해부학적 변이의 하나"로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에 비내시경을 이용한 외과적 치료법이 보편화되면서 수술전 부비동과 점액배출 통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부비동의 전산화 단층 촬영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에 일반 부비동 촬영으로 인지되지 않았던 합기화된 중비갑개의 원발부위<sup>3</sup> 및 합기화된 중비갑개의 음영에 대한 관찰<sup>4</sup>이 가능하여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술전 전산화 단층 촬영소견과 술중 비내시경 소견, 그리고 술후 조직검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162>

- ① 합기화된 -변이의 하나다.
- ② 보편화하면서
- ③ 널리 이용되고 있다.
- ④ 음영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의

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물에는 형태와 기능의 양면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면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곳에 진정한 생명의 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에 있어서도 이상형태와 이상기능의 양면이 있다. 따라서 병든 사람의 기능이상을 규명하려면, 건강한 사람의 생활원리 즉 생활기능을 취급하는 생리학을 모르고서는 이를 추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의 생리를 알아낸다는 것은, 이것을 형태적으로 알아내는 것보다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사적으로도 생리학의 발생이 해부학보다 뒤떨어졌고, 또 병태생리학이 병리해부학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늦게 발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②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종 기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양자는 매우 급진적인 성장을 하여 함께 질병의 연구에 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2차대전 얼마 후까지 병리학이라고 하면, 형태적 관찰을 위주로 하는 병리해부학을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병리학은 이들 양자를 함께 이해해야만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질병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항상 그 형태학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를 함께 결부시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163>

- ① ※불필요한 말임. 연설문이 아니고 강의 교재라는 사실을 상기할 것임.
- ② 병든 사람도/병든 사람에게도
- ③ 다루는
- ④ 생리학을 알아야 한다.
- ⑤ ※불필요한 말임.
- ⑥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까닭에 의학사적으로도 생리학이 해부학보다 뒤늦게 성립되었고, 또 병태생리학이 병리해부학보다 훨씬 늦게 성립되었다.
- ⑦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종 기기가 발달하여
- ⑧ 생리학과 해부학은/병태생리학과 병리해부학은
- ⑨ 둘 다 매우 급진적으로 성장하여 질병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⑩ 병리학과 생리학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 ⑪ 따라서 질병에 관하여 연구하려면 형태학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를 결부하여 이해해야 한다.

① 병리학(pathology)은 질병에 관한 기초학으로서 의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병실에서 연구실로 다시 연구실에서 병실로의 의학적 인식과 임상적 실천을 통하여 얻어진 체계적 학문(systematic science)이므로, 그 성과와 현황을 바르게 이해해 두는 것은 의학 및 의료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소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병리학은 어떤 학문인가. 병리학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우리나라의 병리학은 어떤 경로를 밟아 오늘의 위치에 서 있는가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64>

① ※長文임.

병리학은 질병에 관한 기초 학문으로서 의학의 근간을 형성한다. 연구실과 병실을 오가며 의학적 인식과 임상적 실천을 통해 얻는 체계적 학문이 병리학이므로 모든 의료인(醫療人)은 그 성과와 현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③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 느낌이 있음. ②에 ③이 포함될 수 있음.

③ 우리나라의 - 서 있는가에 대해서



- ①빈혈의 원인적 분류는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②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성 질병이 허다하고 ③원인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이 경주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④일상  
 ⑤사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165>

※ 장문(長文)임. 두 문장으로 나눈다.

①※'이상적(理想的)'이란 말은 최고선(最高善)이다. 여기에 '매우'는 그다지 필요한 말은 아니다.

※ 어디에, 무엇을 하는 데에 이상적인지 명시하지 않음.

※ '분류(分類)'가 왜 '방법'인가.

- ①빈혈의 원인적 분류는 -하는 데에 이상적이다. 그러나  
 ①'빈혈의 원인적 분류는 -하는 데에 이상적인 방법이기  
 는 하다. 그러나  
 ②원인 모를 빈혈성 질병이 많고,  
 ③원인을 찾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④일상적(日常的)으로(/일상에서)  
 ⑤활용하기에는

## 7. 글의 구조

전기진단검사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알아야 한다. Sunderland<sup>2</sup>는 안면신경 손상의 병태생리를 그 정도에 따라 5가지(1도 손상~5도 손상)로 세분하였다. 즉 1도 손상은 단순한 신경무작동(neurapraxia)으로 생리적 전도 차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기 자극에 반응하며 신경압박이 제거되면 약 3주 경과 후 회복이 시작되며, 2도 손상은 축삭절단증(axonotmesis)으로 축삭의 소실은 있으나 신경내막관(endoneurial tube)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3주에서 2개월 경과 후 회복이 시작되어 완전 회복이 가능하며, 3도 손상은 신경내막관(endoneurial tube)이 소실된 신경단열증(neurotmesis)으로 전기 자극검사에 반응이 현저히 감소되며 2~4개월 후부터 회복이 시작되나 불완전 회복이 오며, 4도 손상은 축삭돌기와 수초뿐만 아니라 신경주막(perineurium)까지 파괴된 상태(neurotmesis, partial transection)로 4~18개월 후에 회복이 시작되나 회복이 매우 미약하고, 5도 손상은 신경외막(epineurium)을 포함한 모든 신경 조직이 파괴된 상태(neurotmesis, transection)을 말하며 완전 절단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

<166>

다음 다섯 가지(1도 손상~5도 손상)로 세분하였다.

### (1) 1도 손상

- ① 단순한 신경 무작동으로 생리적 전도 차단이 있음.  
 ② 전기 자극에 반응함.  
 ③ 신경 압박 소멸 3주 후 회복하기 시작함.

### (2) 2도 손상

- ① 축삭 절단증(漢字)으로 축삭은 손실되었으나 신경내막관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임.  
 ② 3주~2개월 후 회복하기 시작하여 완쾌할 수도 있음.

### (3) 3도 손상

- ① 신경내막관이 소실된 신경단열증임.  
 ② 전기 자극 검사에 반응이 뚜렷이 줄어들음.  
 ③ 2~4개월 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나 불완전함.

### (4) 4도 손상

- ① 축삭돌기, 수초(漢字), 신경주막(漢字) 파괴된 상태임.  
 ② 4~18개월 후에 회복하기 시작하나 그 정도가 미약함.

### (5) 5도 손상

- ① 신경외막을 포함한 모든 신경 조직이 파괴된 상태  
 ② 회복되지 않음.



방법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7>

실제로 이러한 정신분석 비평을 문학에 적용하는 방법은 첫째, 작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둘째, 창조의 과정에 대한 연구, 셋째, 문학작품에 내재해 있는 심리학적 유형들에 대한 연구, 넷째, 문학의 효과에 대한 연구(독자 심리학)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洪吉童傳」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리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게 된다. 첫째,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다른 고전문학 작품과는 달리 정확한 저자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작가의 심리와 창작과정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쉽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許筠이라는 한 개인의 전기적 사실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데, 그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하겠다. 물론 「洪吉童傳」을 許筠이 지었다고 한 澤堂 李植의 증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심스러운 데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결정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작가에 대한 다른 결정적 대안을 찾을 수 없고, 許筠을 작가로 보는데 국문학계에서도 대체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작가를 許筠으로 확정하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둘째는, 작가가 소수의 특권 계층인 양반 계급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오래도록 읽혀져 온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까닭에는 「洪吉童傳」이 순 우리말로 씌어져 일반 민중들을 접하기 쉬웠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이 조선시대를 지나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시대적 차이를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소설적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가의 무의식적인 동기가 한국인의 보편적인 심성을 자극하였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무의식을 주제로 다루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洪吉童傳」의 주제는 다른 고전인 「沈清傳」과 「春香傳」 등의 구전문학 작품이나 「九雲夢」과 같은 소설과는 달리 당시 사회체제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모순을 드러내는 강도가 훨씬 높다. 또한 작가가 당시의 정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체제 저항적인 주제의 소설을 썼지만, 그 소재 면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와 주제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소재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이 오랫동안 읽혀져 온 밑바탕에는 사회체제에 대한 갈등과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이 한국인의 무의식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셋째는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소설로, 알려진 다른 고전문학 작품에 비하여 국문학계에서 작가론과 아울러 어학적 연구, 배경 연구, 주제론, 형상론, 유형론, 문학사적 연구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정신분석적인 연구를 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다.

<168>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환상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다. '꼬리'(Coda)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나 기타 다른 몇 나라 말에서 penis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서 꼬리가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fellatio를 상징한다. 이로 볼 때 그의 이런 환상은 수동적 동성애의 환상속에 있을 법한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젖을 빨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하겠다. 둘째 독수리에 관한 분석이다. 독수리는 어머니-여성의 상징이다. 이집트 고대신화 속에는 독수리 머리를 가진 Mut라는 모성신이 있었으며 이집트 상형문자에서는 독수리를 어머니로 표현했다.

<참고>

잘못 쓰인 용례(用例)

고칠 말	고친 말
가까히	가까이
강열한	강렬(強烈)한
갓었다	가졌다
개(個)	모(목 한 ~)
거시며	것이며
골르다	고르다(選)
귀절	구절(句節)
그러커니와	그렇거니와
그럴려면	그려려면
그저	그저(제발)
기간 동안에	기간에
깊숙히	깊숙히
깎아뭇개다	깎아뭇개다
꺼리(감)	거리(먹을~)
나르썬시즘	나르시시즘
나뭇꾼	나무꾼
날카로와져	날카로워져
내제하다	내재(內在)하다
내향적	내성적(內省的)
네델란드	네덜란드
네째	넷째
높히다	높이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댓가	대가(對價, 代價)
더부러	더붙어
더우기	더욱이
되어지다	되다
두째	둘째
들려서	들려서(이웃집에 ~)
들어내다	드러내다(밖으로 내보이다)
띄다	떠다(미소를~, 임무를 ~)
떠다	떠다(눈에 ~)
류(類)	유(이런 ~)
마져	마저(너~)
마지막	※끝
막내둥이	막내둥이
맞닥드리다	맞닥뜨리다
매 순간마다	순간마다/매순간(每瞬間)



먹냐고	먹느냐고
메꾸다	메우다
밀어부치다	밀어붙이다
버릴게	버릴게
벌리다	벌이다(일을 ~)
부치기	붙이기(꼬리표 ~)
附合하다	符合하다(일치하다)
扮身	分身
불가사이	불가사의(不可思議)
블리우다	블리다
붓두막	부뚜막
비로서	비로소
뻘먹다	뻘뜨리다
사람이예요	사람이예요
嘗篇	掌篇
새로와지다	새로워지다
색씨	색시
생각치	생각지
생각컨데	생각건대
서로 상반된	상반(相反)된
세째	셋째
센타	센터
소탄하다	소탈하다(성품이 ~)
受精	受精(精子를 받음)
쌍둥이	쌍둥이
쌌디즘	사디즘
쓸어지다(壞)	쓰러지다
아니드라도	아니더라도
야단치다	꾸중하다/질책하다/꾸짖다
억메이다	엿메이다
에디푸스	오이디푸스
역활	역할(役割)
열쇠	열쇠
예컨데	예컨대
오래동안	오랫동안
와중(渦中)에	※도중에, 중에
왜냐면	왜냐하면
외디프스	오이디푸스
要素	要素
움추이다	움츠리다
월등히	월씬(~否定的인 말)
유머	유머
이미지	이미지
이조(李朝)	조선(朝鮮)
인수 받다	인수하다/받다
일찌기	일찍이

자유로와지다	자유로워지다
작란	장난
잦은 빈도	빈도(頻度)
적었는데다	적은데다(少量)
적절이	적절(適切)히
종내	종래(從來)
주물르다	주무르다
줄곧	줄곧
쫓아내다	쫓아내다
찍어눌르다	찍어누르다
챙피	창피(猖披)
치박히다	치박하다
촛점	초점(焦點)
큰 형	큰형
팜플렛	팸플릿
하고저	하고자(소개~)
하드라도	하더라도
하심시오	하심시오
할려고	하려고
할찌	할지
했다구요	했다고요

## <타동사>

### 고칠 말

격하시키다  
결합시키다  
고무시키다  
국한시키다  
내재화시키다  
노출시키다  
단절시키다  
무력화시키다  
무마시키다  
반영시키다  
발산시키다  
부각시키다  
분리시키다  
손상시키다  
실현시키다  
압축시키다  
야기시키다  
억압시키다  
억제시키다  
여성화시키다

### 고친 말

격하(格下)하다  
결합(結合)하다  
고무(鼓舞)하다  
국한(局限)하다  
내재화(內在化)하다  
노출(露出)하다  
단절(斷絶・斷切)하다  
무력화(無力化)하다  
무마(撫摩)하다  
반영(反映)하다  
발산(發散)하다  
부각(浮刻)하다  
분리(分離)하다  
손상(損傷)하다  
실현(實現)하다  
압축(壓縮)하다  
야기(惹起)하다  
억압(抑壓)하다  
억제(抑制)하다  
여성화(女性化)하다



연기시키다	연기(延期)하다
왜곡시키다	왜곡(歪曲)하다
위장시키다	위장(僞裝)하다
유지시키다	유지(維持)하다
의인화시키다	의인화(擬人化)하다
일반화시키다	일반화(一般化)하다
자극시키다	자극(刺激)하다
전이시키다	전이(轉移)하다
전환시키다	전환(轉換)하다
접촉시키다	접촉(接觸)하다
정당화시키다	정당화(正當化)하다
정형화시키다	정형화(定型化)하다
제한시키다	제한(制限)하다
중화시키다	중화(中和)하다
촉진시키다	촉진(促進)하다
축약시키다	축약(縮約)하다
통합시키다	통합(統合)하다
파괴시키다	파괴(破壞)하다
함입시키다	함입(含入)하다
해소시키다	해소(解消)하다
형상화시키다	형상화(形象化・形狀化)하다
확대시키다	확대(擴大)하다
확장시키다	확장(擴張)하다
환기시키다	환기(換氣・喚起)하다
회복시키다	회복(回復・恢復)하다
희석시키다	희석(稀釋)하다